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패션의류학과

김 소 희

2018年 12月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指導教授 張賢珠

金昭希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金昭希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이주영

委員

강애란

委員

장현주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 목 차

국문 초록

표 목차

그림 목차

##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 II. 국내·외 복식박물관 현황조사 및 분석

1. 국내 박물관
  -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2) 국립민속박물관
  - 3) 국립고궁박물관
2. 국외 박물관
  - 1)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 2)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 3) 고베패션미술관

## III.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1. 교육·체험 프로그램
  - 1)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 2) All about Hanbok
  - 3) Running & Learning Book
  - 4) 교과서 속 우리옷

## 2. 홍보 프로그램

- 1) 한복 팔도 유랑
- 2) 한복 리포터 매거진

## 3. 사회공헌 프로그램

- 1)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 2) 우리옷 다시 입기

## IV. 결론

참고문헌 목록

미주 목록

부록

1. 국내·외 복식관련 박물관 답사사진자료
2. 고베패션미술관 학예원 하마다쿠니오 인터뷰내용
3.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활동지

ABSTRACT

## 국문초록

한국복식은 현재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 한복의 경계는 현대화된 한복의 등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한복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복식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와 지식들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박물관 및 한복진흥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한국복식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한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비롯한 관련 전공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복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과 전문적인 교육의 다양화와 접근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복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교육제공과 한국복식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복식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교육·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복식박물관을 현황조사 및 분석하고,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하여 서비스러닝을 접목한 교육·체험, 홍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서비스러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한국복식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접근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서비스러닝을 도입하여 일반인들도 한국복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한국복식의 존재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는 한국복식유물 관련 문헌 및 박물관 프로그램 사례,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는 국내·외 복식유물을 보유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박물관은 학예사와 서면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내용은 한국복식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친취적인 발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으로 여덟 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한국복식유물을 소장한 박물관 세 곳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 및 출토유물, 민속복식 및 왕실 복식 등 한국복식유물의 자료의 양이 상당하고, 관모종이 접기, 떨잠만들기, 왕실태교(침선반) 등의 운영을 통한 전통복식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전시활동과, 다양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국외 복식유물을 소장한 박물관 세 곳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고베패션미술관은 복식, 예술품을 중심으로 복식유물과 디자이너, 시대별 패션의 변천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식유물을 활용하여 갈라쇼, 공연, 패션쇼 등의 행사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 여섯 곳의 박물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전문적인 복식 박물관이 발달한 국외에 비하여, 국내에는 비교적 복식전문 박물관의 수가 적다는 점이며, 기존 교육·체험프로그램에서 한국복식유물의 활용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한국복식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을 분류하면 전시연계, 체험, 세미나 및 강연, 교과연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이들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자가 설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All about Hanbok’, ‘Running & Learning Book’, ‘교과서 속 우리옷’ 네 가지이며,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네 가지 유형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전시연계유형의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은 한국복식유물 전시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유·아동 학습자들이 봉사자와 함께 사라진 공주당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유·아동들에게 한국복식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호기심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세미나 및 강연유형과 체험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All about Hanbok’은 외국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유물을 활용한 한국복식의 기초지식, 오방색 등 동양학적 사상에 대한 이해, 제작·착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Running & Learning Book’은 ‘뛰다’라는 의미의 ‘Running’과, ‘배우다’라는 의미의 ‘Learning’을 합친 용어의 컬러링북으로, 체험유형의 프로그램이다. 한국복식유물을 채색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복식의 색상, 상징과 각 유물의 의미와 용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교과연계유형의 ‘교과서 속 우리옷’은 중등 기술·가정 교과 바탕으로 프로그램으로, 한국복식의 기본형에 대한 이해, 한복의 우수성, 한국복식 진로 관련 봉사자와 멘토를 구성하여 한국복식의 관심부여와 진로설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섯째, 홍보 프로그램으로 ‘한복 팔도 유랑’과 ‘한복 리포터 매거진’을 설계했다. 두 프로그램은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복 팔도 유랑’은 전국의 각 지역별 홍보단을 모집하여 그들의 지역별 한국복식유물과 특색 있는 복식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한국 전통복식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복 리포터 매거진’의 경우, 봉사자들이 한복 리포터가 되어 한국복식유물과 한복의 트렌드와 아이템 등을 취재하고, SNS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여섯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와 ‘우리옷 다시 입기’가 있다.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인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는 봉사자가 가계곤란 및 한부모가정, 미혼모 등의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한국복식유물과 제작교육을 하고 제작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학습자가 자활을 돕도록 설계했다. ‘우리옷 다시 입기’는 오래된 한복을 새로운 제품으로 새롭게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판매하고 기부하도록 설계하였다. 오래된 한복의 가치를 조명하고 환경보호 측면이 커 한국복식의 순환을 통한 사회공헌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는 박물관은 물론 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의 활용 가능한 한국복식 프로그램의 기초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인 한국복식유물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한국복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검색어 : 한국복식, 서비스러닝, 복식박물관, 교육·체험, 홍보, 사회공헌

## 표 목차

|  |    |
|--|----|
| <표 1> 박물관의 정의 .....                                | 5  |
| <표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현황 .....                      | 10 |
| <표 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4~2018년) ..    | 13 |
| <표 4> 국립민속박물관 현황 .....                             | 16 |
| <표 5>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4~2018년) .....        | 19 |
| <표 6> 국립고궁박물관 현황 .....                             | 23 |
| <표 7>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4~2018년) .....        | 26 |
| <표 8>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현황 .....                     | 30 |
| <표 9>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8년) .....     | 32 |
| <표 10>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현황 .....                       | 35 |
| <표 11>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8년) .....       | 37 |
| <표 12> 고베패션미술관 현황 .....                            | 41 |
| <표 13> 고베패션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8년) .....            | 43 |
| <표 14> 교육·체험 프로그램 .....                            | 50 |
| <표 15>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52 |
| <표 16> All about Hanbok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57 |
| <표 17> Running & Learning Book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60 |
| <표 18> 교과서 속 우리옷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64 |
| <표 19> 홍보 프로그램 .....                               | 66 |
| <표 20> 한복 팔도 유랑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                | 69 |
| <표 21> 한복 리포터 매거진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제작 .....              | 72 |
| <표 22> 사회공헌 프로그램 .....                             | 73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논문의 전개도 .....                                   | 4  |
| <그림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전경 .....                         | 7  |
| <그림 3> 덕온공주당의 .....                                    | 8  |
| <그림 4> 덕온공주원삼 .....                                    | 8  |
| <그림 5> 박물관내 어린이 체험교실 교구 .....                          | 12 |
| <그림 6> 어린이 관람객 종이 관(冠) 체험 .....                        | 12 |
| <그림 7> 박물관내 어린이 체험교실 .....                             | 12 |
| <그림 8> 조각보 및 까치두루마기 컬러링 .....                          | 12 |
| <그림 9> 국립민속박물관 전경 .....                                | 14 |
| <그림 10> 변수 묘 출토 요선 첩리 .....                            | 15 |
| <그림 11> 정원용 의대 중 청초의 .....                             | 15 |
| <그림 12>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행사 .....                             | 17 |
| <그림 13> 국립고궁박물관 전경 .....                               | 20 |
| <그림 14> 덕혜옹주 돌띠저고리와 풍차바지 .....                         | 21 |
| <그림 15> 덕혜옹주 당의와 스란치마 .....                            | 21 |
| <그림 16> 나도 왕비처럼 프로그램 .....                             | 24 |
| <그림 17> 왕실태교 프로그램 .....                                | 25 |
| <그림 18>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전경 .....                       | 28 |
| <그림 19> ‘Heavenly bodies’ 전시 .....                     | 29 |
| <그림 20> ‘Heavenly bodies’ 전시 .....                     | 29 |
| <그림 21> Undressed : A Brief History of Underwear ..... | 35 |
| <그림 22> Undressed : A Brief History of Underwear ..... | 35 |
| <그림 23> 고베패션미술관 전경 .....                               | 40 |
| <그림 24> 관내 라이브러리 .....                                 | 42 |
| <그림 25> 뮤지엄샵 오리지널 상품 .....                             | 42 |
| <그림 26> 서비스러닝 역할과 의의 .....                             | 49 |



|   |    |
|---|----|
| <그림 27>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                             | 56 |
| <그림 28> All about Hanbok - Chronicles of Hanbok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 | 60 |
| <그림 29> Running & Learning Book - 한복입고 나들이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제작 .....      | 63 |
| <그림 30> 청소년 대상 진로멘토링 .....  | 64 |
| <그림 31> 교과서 속 우리옷 - 종이한복 입히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제작 .....                    | 67 |
| <그림 32> 한복 팔도 유랑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                           | 70 |
| <그림 33> 한복 리포터 매거진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                         | 74 |
| <그림 34> 한복입고 제주 여행하기 .....  | 75 |
| <그림 35>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                                   | 77 |
| <그림 36> 사랑밭 배냇저고리 참여기부 캠페인 .....                                    | 77 |
| <그림 37>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                        | 79 |
| <그림 38>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 매듭공예 교육 설계 .....                   | 80 |
| <그림 39> 우리옷 다시 입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                          | 82 |
| <그림 40> 우리옷 다시 입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                    | 83 |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현재 한국복식에는 현대화된 한복이 등장하면서 현대적인 디자인과 서구식 생활에 편리한 형태가 접목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복식이 다양한 방향으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복의 활용과 수용에 대한 의미는 전통과 현대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수요자들의 한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도 왜곡된 인식이나 한복관련 지식의 부족함이 느껴진다. 아직은 일반인들을 위한 전문적 한복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도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그나마 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부 프로그램 및 대학의 의류관련 학과나 한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한국복식관련 전시 및 유물 활용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구지연(2006)<sup>1)</sup>의 ‘전통복식유물의 전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전통복식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에서 국내 전통복식유물을 보유한 박물관들의 소장 복식유물의 분류와 전시방안, 교육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김윤미(2010)<sup>2)</sup>의 ‘박물관 전통의생활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박물관에서의 의생활 교육의 현황과 관련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전통의생활 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실제 운영 가능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제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복식 전시 및 유물의 활용방안과 교육의 방향 등에 대한 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그쳐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보다 단기 기획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제언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한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를 시도한다. 한국복식의 원형인 복식유물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대상별 한국복식 관련 지식수준에 맞추어 한국복식의 기본형과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기존의 한국복식관련 프로그램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는 교육 방법인 서비스러닝을 접목하고자 한다. 서비스러닝은 봉사자와 학습을 연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와 제공받는 학습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습방법이다. 봉사자가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지식을 제공하게 되며, 봉사자는 자신들의 학습에 대한 고찰과 한국복식 교육에서 활용가능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학습자는 봉사자를 통해 한국복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경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러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은 봉사자와 학습자의 상호교류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어 더욱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복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어려운 교육이라는 인식이 아닌 즐기며 학습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설계하여 한국복식에 대한 쉬운 접근과 위화감이 없는 ‘우리웃’으로서의 인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 설계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복식의 기초적 지식 교육과 인식개선, 한국복식 교육의 새로운 시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들은 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육·체험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 세 가지로 분류로 하였고 세부적으로 여덟 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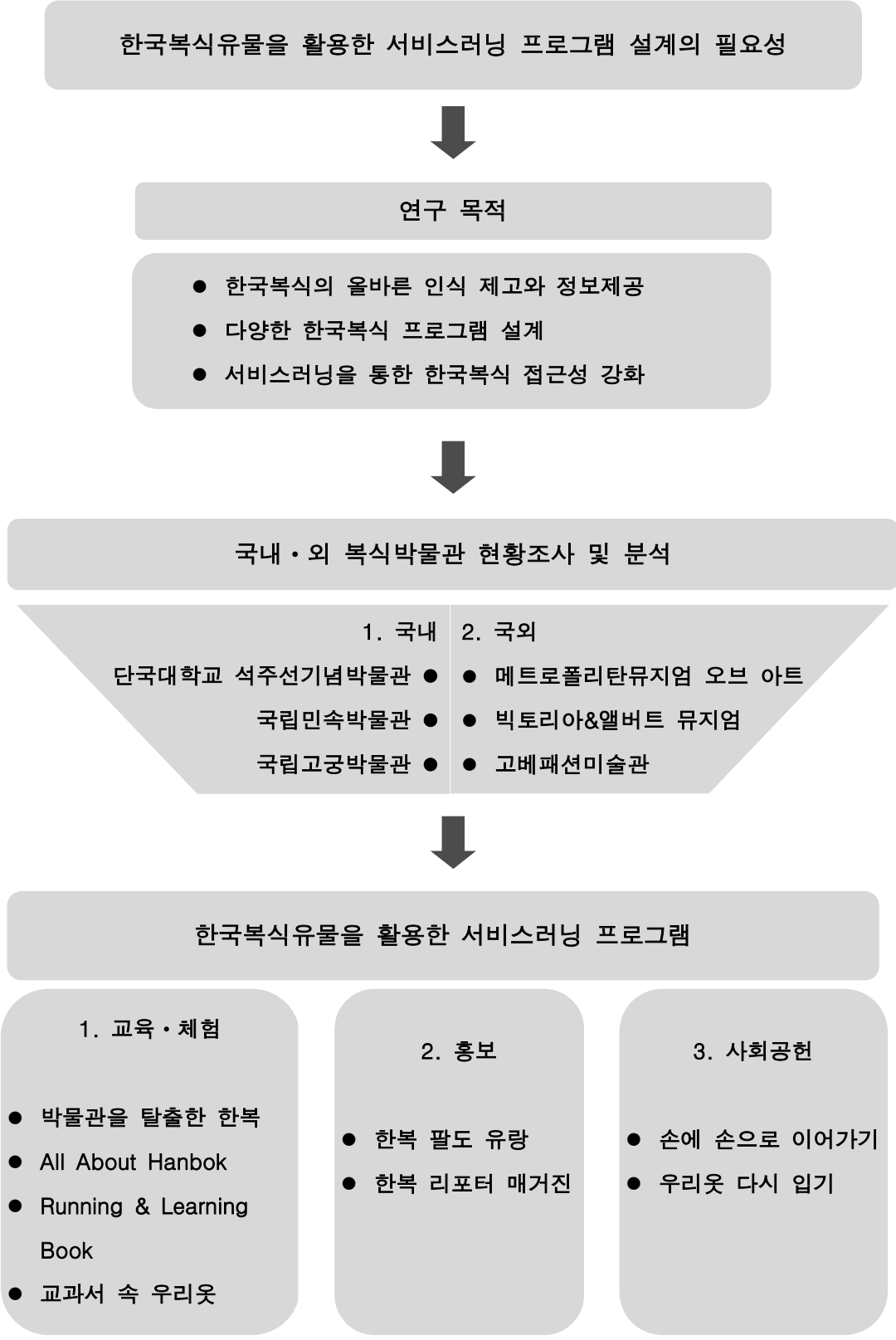
##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실증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인 배경을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교육론』, 『미래의 미술관』 등의 박물관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고, 이를 통해 박물관의 역할과 방향성, 박물관 유물 및 연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등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대학교육과 봉사학습 : 이론적

관점과 실제』, 『대학봉사학습의 동향과 과제』 등의 문헌 및 서울여자대학교의 서비스러닝 사례 등을 통해 서비스러닝의 정의, 역사, 사례를 알아보았다.

II장에서는 국내·외 박물관의 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실제 현장 답사 및 서면 인터뷰,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서적을 통한 문헌조사로 진행하였다. 복식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복식 및 장식미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박물관들을 중심으로 답사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 박물관으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을, 국외 박물관으로는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고베패션미술관> 총 6곳의 박물관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장에서는 서비스러닝을 접목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여덟 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설계는 II장에서 도출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전시연계, 체험, 세미나 및 강연, 교과연계유형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All about Hanbok’, 컬러링북 프로그램 ‘Running & Learning Book’, 중등 기술·가정 연계 프로그램 ‘교과서 속 우리옷’을 설계 하였다. 홍보 프로그램 설계는 한국복식의 동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한복 여행 프로그램 ‘한복 팔도 유랑’, 복식유물 및 지역복식 홍보 프로그램인 ‘한복 리포터 매거진’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손뜨개모자 기부 캠페인, ‘2016 서울새활용展’ 등의 사례 등을 자료로 참고하였고, 재능기부 프로그램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한복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우리옷 다시 입기’를 설계하였으며 본 논문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논문의 흐름도

## Ⅱ. 국내·외 복식박물관의 현황조사 및 분석

일상생활에서 한국복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명절이나 행사시, 최근에는 관광지 등에서 접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제한적이다. 하지만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교육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복식유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접근성 또한 비교적 뛰어나다. 다양한 유물을 소장한 박물관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윤병화(2016)<sup>3)</sup>는 박물관에 대한 문헌적 정의 및 역할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박물관에 대한 정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이는 국제박물관협의회, 영국박물관협회, 한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양한 국가와 기관에 따라 해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물의 관리와 문화유산의 보고 역할을 기초로 하여 전시·교육의 장이자 학습·체험의 공간, 대중과의 소통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표 1> 박물관의 정의

|                       | 정 의  |
|-----------------------|--|
| 국제박물관<br>협의회          |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교육, 학습, 즐거움을 위해 인류와 인류환경의 유형, 무형 문화재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여 대중에게 개방한다(2007년, 협의회 총회 정의)                                 |
| 영국박물관<br>협회           | 박물관은 사람들이 전시물을 통해 영감, 배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은 사회의 믿음을 바탕으로 수집, 보존, 접근할 수 있는 유물과 표본제작을 하는 기관이다(1998년)  |
| 한국박물관<br>및 미술관<br>진흥법 |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법률 제13966호(2016년 2월 3일, 일부 개정) 제2조 정의) |

따라서 박물관은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인 의무와 사회·문화를 위한 공공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총체적 문화 중심지의 역할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복식박물관의 현황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 현황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관련 박물관들을 조사하였다. 국내박물관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운양민속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대구섬유패션박물관>, <국립부산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의 현장 답사 및 공식 웹사이트 자료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국외박물관은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 <Musee du Louvre, 루브르박물관>, <Musée des Arts Décoratifs, 장식미술박물관>, <Musei Vaticani, 바티칸뮤지엄>, <Victoria&Albert Museum,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등의 현장 답사 및 <神戸ファッション美術館, 고베패션미술관> 학예사 하마다쿠니오 서면 인터뷰,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의 공식 웹사이트 및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외 복식 박물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다.

II장에서는 이상의 박물관들 중 복식유물자료가 많고 복식관련 학술발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고베패션미술관> 여섯 곳의 국내·외 복식박물관의 현황과 한국복식 및 복식관련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패션관련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례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의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1. 국내

국내 한국복식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중 복식유물자료가 많고, 복식관련 학술발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 곳을 선정하여 최근 5년(2014년~2018년 10월) 간의 박물관 현황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했다.

###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1) 현황조사 및 분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한국복식 보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복식박물관이다.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이 1981년 5월 개관하였고, 1999년 3월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과 통합되어 현재의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2>. 석주선박사의 한국복식 소장 유물들을 바탕으로 한국복식 관련 학회활동 및 전시활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림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전경  
-연구자촬영(2018)



박물관에서는 현재 총 4만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복식유물은 약 1천 5백 여 점이다.<sup>4)</sup> 향온향습시설과 침단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출토유물 및 소장품을 중심으로 하는 복식유물의 보존·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민속문화재는 덕온공주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 1호), 덕온공주의복(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 이언충 묘 출토복식(국가민속문화재 제243호), 고종의 누비저고리(국가민속문화재 제210호), 과천 출토 광주이씨의복(국가민속문화재 제114호), 광해군비 당의(국가민속문화재 제215호),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국가민속문화재 제214호), 향아당의(국가민속문화재 제213호), 김함의 묘 출토의복(국가민속문화재 제209호), 심동신 금관조복(국가민속문화재 제2호) 등이다. <그림 3><sup>5)</sup>과 <그림 4><sup>6)</sup>와 같이 도록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러한 박물관의 복식유물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덕온공주당의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 석주선박사의 우리옷 나라, 34



<그림 4> 덕온공주원삼  
(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

- 석주선박사의 우리옷 나라, 34

본 박물관이 복식관련 소장 유물에 대한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최초 설립자이자 기증자인 석주선 박사의 오랜 한국복식에 대한 관심과 연구 덕분이다. 석주선 박사는 일본에서 양재를 전문적으로 교육 받았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재 보존 및 수집에 대한 열의도 뛰어나 민족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집기류 및 전 세대의 의복류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에 힘써 왔으며, 조선조 왕가 복식의 복원, 출토유물 및 복장유물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석주선박사가 남긴 방대한 유물과 소장품은 후대를 이을 학자들에게 귀중한

복식·민속 자료의 기초가 되고 있다.

단국대학교의 전시관은 상설전시, 특별전시, 야외전시관을 포함하여 5개의 전시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전시는 소장되어있는 유물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민속복식관과 고고미술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민속복식관을 통해 복식을 전문적으로 취급·보존하고 있으며, 복식과 관련된 상설전시와 출토유물 및 소장품 관련 특별전과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3전시실에서는 복원 및 기증 유물들을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출토복식과 근현대 한국복식을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증 유물을 통한 전시와 함께 복식전반의 흐름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술연구로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의 고적조사를 통한 보고서 등을 발표해 왔으며, 그를 통한 『석주선박사의 우리옷 나라』, 『분홍단령의 비밀』,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조선시대 우리옷의 멋과 유행』,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등의 도록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983년도부터 발간된 한국복식 학술지, 1979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전주이씨, 전주 유씨, 고령신씨, 제주 고씨 외 다수 문화재의 발굴 조사 등 출토복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소장품들의 정보는 학술적 자료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표 2><sup>7)</sup>와 같으며, 이 중 운영형태 및 연 관람객 수에 관한 자료는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에 직접 문의하여 작성하였다.<sup>8)</sup>

<표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현황

| 항목              |         | 내용   |
|-----------------|---------|--|
| 설립연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1년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개관<br/>(1999년부터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과 통합 운영)</li> </ul>   |
| 운영형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운영</li> </ul>   |
| 시설현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고미술관(1전시실, 2전시실) &amp; 민속복식관(3전시실, 4전시실)</li> <li>• 보존과학연구실, 유물복원실, 도서자료실, 학예연구원실 등</li> </ul>   |
| 연 관람객 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 대략 1만 2천여 명</li> <li>• 2015년 : 대략 7천여 명</li> <li>• 2016년 : 대략 9천여 명</li> <li>• 2017년 : 대략 1만여 명</li> </ul>  |
| 보유 소장품 현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 4만여 점 (2015년 기준)</li> <li>• 복식유물 : 1천 5백여 점 (2015년 기준)</li> <li>• 중요민속문화재 : 11건 100점 (2015년 기준)</li> </ul>   |
| 대표 복식소장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온공주 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1호)</li> <li>• 덕온공주 의복(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li> </ul>   |
| 전시<br>2014-2018 | 상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민속복식관</b> : 석주선박사의 유품 및 유고 등 전시 (덕온공주 복식 및 생활유품 등 어린이 유물, 350년 전 소년 미라 복식, 조선시대 혼례복, 일상복, 사대부가제복, 관복, 무관복, 관모류와 장신구 등)</li> <li>• <b>고고미술관</b> : 선사시대-근대 중요 유물 전시 (선사시대, 경주인왕동, 사천 송지리, 삼국시대 토기, 통일신라 토기, 철제, 불교, 고려청자, 고려시대문화, 진전사지·정토사지, 조선백자, 조선통신사 등)</li> </ul> |
|                 | 기획 및 특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보령양반의 벼슬살이 - 유당 신태관 일가 유물 외 1회</li> <li>• 15' 분홍단령의 비밀 외 1회</li> <li>• 16' 석주선박사의 우리옷 나라 - 1900년~1960년대 신여성 한복</li> <li>• 17' 꽃과 과실을 품은 여인의 옷 외 1회</li> <li>• 18' 마음을 담아 지은 사랑, 아이 옷</li> </ul>   |

## (2) 교육·체험 프로그램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는 복식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은 유·아동 및 성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전통복식에 대한 친근감을 부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어린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각사각 퍼즐을 맞추어 보아요’ 프로그램은 <그림 5>와 같은 복식유물이 그려진 정육면체 사각형 9개의 조각 퍼즐을 맞추어 한 개의 유물을 완성해 나가는 게임으로, 유아원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팀별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게임은 학습자가 복식유물 조각을 맞추며 그 형태와 구조 등을 집중탐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복식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듯 유물을 활용한 이미지 활동 교구가 휴대용 책자나 판화 등으로 제작 될 경우, 박물관 이외 다양한 곳에서도 교육매체로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 전통 옷’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행사프로그램에서는 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엄마와 함께하는 관모 종이접기’는 <그림 6>의 화관과 금관이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를 접어보고 착용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아동 단체 관람객들을 위한 종이 화관·금관 착용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아동들이 관을 쓰고 짝꿍과 함께 촬영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덕온공주 돌 실타래 만들기’는 성인대상 프로그램이다. 덕온공주의 돌 잔치상에 올렸던 오방색의 실타래를 직접 제작해 보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무병장수와 부모의 염원을 담은 물건들에 대하여 함께 만들고 배우는 활동으로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교육·체험의 모든 과정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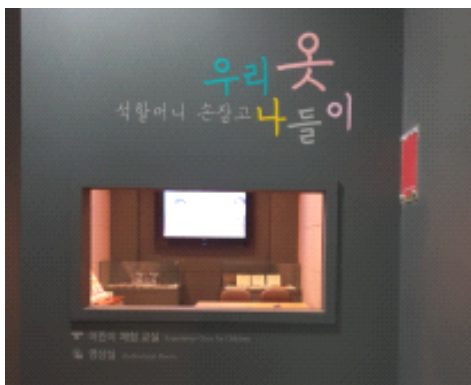
<그림 5> 박물관내 어린이 체험교실 교구  
-연구자촬영(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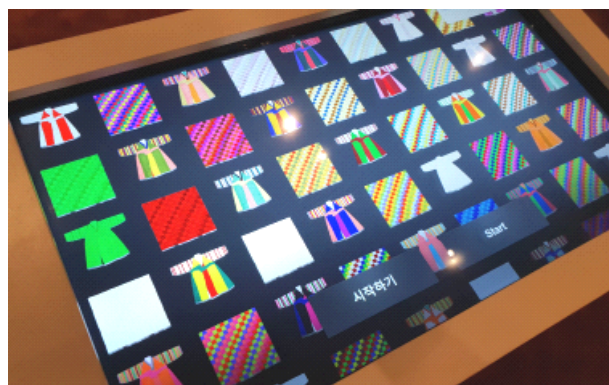
<그림 6> 어린이 관람객 종이 관(冠) 체험  
-연구자촬영(2018)

‘전통 옷 입고 박물관 옛보기’, ‘단옹이 가족 옷 입고 사진 찍기’ 프로그램 등의 복식관련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는데, 단옹이 가족 프로그램은 2001년 해평운씨 집안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소년 미라의 복식유물 110여점의 전시와 연계한 것으로, 재현한 소년미라 단옹이 가족의 옷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 박물관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착용·제작·활동하는 과정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관람객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박물관 내에는 <그림 7>과 같이 어린이 체험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기획전시관에서는 <그림 8>과 같이 까치두루마기의 색동과 조각보의 컬러링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형식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림 7> 박물관내 어린이 체험교실  
-연구자촬영(2018)



<그림 8> 조각보 및 까치두루마기 컬러링  
-연구자촬영(2018)

이 외에도,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시민인문강좌를 개설하여 전통문화와 한국복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전통 세시풍속인 단오절을 맞아 매년 부채 만들기 무료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전통 아동복식을 바탕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인 ‘어린이 우리옷 뽑내기’ 어린이 패션쇼 등을 진행하여 어린이 관람객과 부모들이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관에서 실시한 복식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4~2018년)

| 항목                                |     | 내용  |
|-----------------------------------|-----|---|
| 교육<br>·<br>체험<br>프<br>로<br>그<br>램 | 어린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어린이 우리옷 뽑내기</li> <li>· 16' 사각사각 퍼즐을 맞추어 보아요(특별전 연계)</li> <li>· 18' 엄마와 함께 하는 관모 종이접기(특별전 연계)</li> <li style="padding-left: 20px;">전통 옷 입고 박물관 엿보기(특별전 연계)</li> </ul> |
|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 단오부채 만들기 무료체험 행사</li> <li>· 17' 단오부채 만들기 무료체험 행사</li> <li>· 18' 단응이 가족 옷 입고 사진 찍기(특별전 연계)</li> </ul>   |
|                                   | 일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봄 학기 시민인문강좌</li> <li>· 15' 가을학기 시민인문강좌</li> <li>· 18' 덕온공주 실타래 만들기(특별전 연계)</li> </ul>  |



## 2) 국립민속박물관

### (1) 현황조사 및 분석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삶을 담은 박물관으로, 1945년 11월 8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창립하여 1992년 10월 30일 문화부 소속의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직제개편하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그림 9>. 한국인의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9> 국립민속박물관 전경  
-연구자촬영(2018)

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하는 민속연보 2017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는 대략 8만 2천 여 건, 13만7천 여 점이며, 복식유물 및 소장품의 경우 대략 9천 8백 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sup>10)</sup> 대표적 유물로는 변수 묘 출토 유물(국가민속문화재 제264호), 장영직 유품(張榮稷遺品)(국가민속문화재 제241호), 경산 정원용 의대(經山鄭元容衣帶) 유품(중요민속문화재 제13호), 근대 복식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0><sup>11)</sup>, <그림 11><sup>12)</sup>



<그림 10> 변수 묘 출토 요선 첩리  
(중요민속문화재 제264호)  
-<http://www.nfm.go.kr>



<그림 11> 정원용 의대 중 청초의  
(중요민속문화재 제13호)  
-<http://www.nfm.go.kr>

전시관은 3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실에서는 한민족의 생활사를, 제2전시실에서는 한국의 일상을, 제3전시실에서는 한국의 일생을 주제로 생로병사와 관혼상제 등의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1-2년 주기로 상설 및 특별전시를 새롭게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전시의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물관에서는 민속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민속학 및 관련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속학자 취헌 장철수, 월산 임동권 기증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소장자료 보존연구에서 섬유 보존의 경우 2002년 조선시대 민묘 출토복식 보존처리를 시작으로 약 1만 2천여 점을 연구하여 전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지역민속문화의 해,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등을 지속하여 민속자원 발굴 및 민속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목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민속 생활자 관련 박물관들과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민속 관련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규방공예와 민화, 한옥, 전통문양 등 한국의 미를 담은 작품들과 현대적 디자인 상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구체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4><sup>13)</sup>와 같다.



<표 4> 국립민속박물관 현황

| 항 목       |         | 내 용   |
|-----------|---------|---|
| 설립연도      |         | · 1945년 11월<br>(국립민속박물관 창립 후 1975년 4월 한국민속박물관 개관)   |
| 운영형태      |         | · 국립  |
| 시설현황      |         | · 상설전시실1·2·3, 기획전시실1·2<br>· 어린이박물관, 민속아카이브 등  |
| 연 관람객 수   |         | · 2014년 : 대략 327만여 명<br>· 2015년 : 대략 237만여 명<br>· 2016년 : 대략 271만여 명<br>· 2017년 : 대략 181만여 명  |
| 보유 소장품 현황 |         | · 전체 : 대략 8만 2천여 건, 13만 7천여 점(2017년 민속연보 기준)<br>· 복식유물 : 대략 9천 8백여 점(소장품 중 '의'로 분류)   |
| 대표 복식소장품  |         | · 장영직 유품(중요민속문화재 제241호)<br>· 경산 정원용 의대 유품(중요민속문화재 제13호)<br>· 변수 묘 출토 유물(중요민속문화재 제 264호)   |
| 2014-2018 | 전시      | · 제1전시실 : 선사시대-현대 우리 민족의 대표적 생활사 전시(역사 속으로 이 땅의 사람들, 자연 속에서 인간 속으로, 영역의 확장, 문화의 향유, 대중의 등장과 성장 영상으로 본 한국인)<br>· 제2전시실 : 2년 주기 농경생활과 사계절 변화에 맞춰 살아온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전시(마을의 형성과 조직, 봄, 여름, 가을, 겨울)<br>· 제3전시실 :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집안의 개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과정 전시 (출생, 교육, 관례, 혼례, 가족, 출세, 풍류, 회갑, 치유, 상례, 제례) |
|           | 기획 및 특별 | · 14' 청바지 외 5회<br>· 15' 민속학자 김태근이 본 한국무속 외 6회<br>· 16' 때깔, 우리 삶에 스민 색깔 외 7회<br>· 17' 겨울나기 외 6회<br>· 18' 호모 소금 사피엔스 외 3회   |
|           | 어린이 박물관 | · 14'~15' 상설전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특별전시 '똥 나와라 똥똥'<br>· 16'~18' 상설전시 '신화 속 동물 이야기' 특별전시 '나무를 만나다'<br>· 17'~18' 특별전시 '맛있는 아시아, 밥·빵·국수'   |

## (2) 교육·체험 프로그램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가·일반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체험 교실과 문화 나눔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이 다양화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

의·식·주 등 한국인의 생활상을 담은 체험 행사 프로그램이 다수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절기별 문화를 보여주는 세시풍속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 초 설맞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정월대보름 한마당, 여름 맞이 단오 행사, 추석 한가위 큰 마당, 봄 입춘 행사 등 한국인의 삶의 흐름을 담은 전통적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행사를 <그림 12><sup>14)</sup>와 같이 진행하였다. 그 중 복식관련 행사로는 오촌댁 앞에서 설빔입고 기념촬영 하기, 복을 담은 복주머니 만들기, 곱디 고운 댕기 만들기, 단오 부채 만들기, 오촌댁 앞에서 추석빔 입고 맵시 뽐내기, 민화를 활용한 민화가방 만들기, 병뚜껑 브로치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 12>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행사  
- 민속연보2017, 31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step by step Korean Culture!’가 운영되었다. 주한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세시 풍속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월별 세시연계 체험교육으로 삼짚날, 한식, 단오, 동지에 맞추어 전통음식 만들어 나누기와 부채,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며, 상설전시와 연계하여 음악, 문양, 옷에 대하여 학습·체험한다. 이 중 ‘한국의 옷’ 프로그램은 한복입기 체험과 절 배우기 등 생활예절과 옷차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며, 한복입고 전시실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큐레이터 선정 유물교육, 다문화 교육, 기획전시 관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제작된 결과물과 사례들을 매년 ‘숨씨전’을 통해 전시하고 교육성과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5><sup>15)</sup>와 같다.

<표 5>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4~2018년)

| 항 목                                   |          | 내 용  |
|---------------------------------------|----------|--|
| 교육<br>·<br>체<br>험<br>프<br>로<br>그<br>램 | 일 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민속, 석학에게 듣다 외 2개</li> <li>· 15' 수요일에 만나는 우리 민화 외 1개</li> <li>· 16' 손바느질로 만나는 생활소품 외 5개</li> <li>· 17' 박물관 민속학교실 외 10개</li> <li>· 18' 퍼즐로 풀어보는 박물관 이야기 외 5개</li> </ul>           |
|                                       | 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초등교원우리민속연수 외 6개</li> <li>· 15' 대학생 예비큐레이터 과정 외 4개</li> <li>· 16' 다문화꾸러미 강사교육 외 7개</li> <li>· 17'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외 3개</li> <li>· 18' 국제지역 전문가 과정 외 2개</li> </ul>                  |
|                                       | 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이팔청춘 조선탐험대 외 6개</li> <li>· 15' 박물관 추억행 타임머신 외 6개</li> <li>· 16' 한국인의 일생의례 완전정복 외 11개</li> <li>· 17' 자연이 주는 선물, 우리웃 산책 외 11개</li> <li>· 18' 박물관에서 만나는 씨줄과 날줄이야기 외 11개</li> </ul> |
|                                       | 외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우리민속나눔교실 외 1개</li> <li>· 15' 테마가 있는 한국 민속 체험교실 외 3개</li> <li>· 16' 한국의 멋과 맛 외 3개</li> <li>· 17' 외국인을 위한 세시체험교육</li> <li>· 18' 한국문화 알기 외 1개</li> </ul>                           |
|                                       | 문화<br>소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우리들의 성장이야기 외 2회</li> <li>· 16' 지역과의 소통! 접자도·문자도 외 2회</li> <li>· 17' 찾아가는 우리 민속 외 3회</li> <li>· 18' 우리 옛집 기와집 외 3회</li> </ul>  |

### 3. 국립고궁박물관

#### (1) 현황조사 및 분석

국립고궁박물관은 1908년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으로 발족 한 후, 1946년 덕수궁미술관으로 개칭, 이후 1969년 국립박물관으로 통합개편 되었고, 2005년 8월 부분개관, 2007년 11월 전면 개관 하였다. 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 유물의 과학적인 보존 및 관리, 복원과 함께 조선왕조의 왕실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왕실전문박물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그림 13>.



<그림 13> 국립고궁박물관 전경  
- 연구자자촬영(2018)

박물관에서는 현재 약 4만 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왕조 왕실 전반에 대한 유물과 복원품, 자료를 통한 왕실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복식유물은 의상류 및 장신구류를 포함 대략 3천 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sup>16)</sup> 대표적인 유물로는 영친왕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국가민속문화재 265호)가 있는데, 특히 영친왕 운보문사 홍룡포, 영친왕비 적의, 영친왕비 대삼작노리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영조어진(보물 제932호)과 철종어진(보물 제1492호)이 있는데, 이 중 철종어진의 경우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으나 어진 중 유일하게 구군복(具軍服)을 착용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어 지며, 상설 전시에는 유물의 복원품과 함께 용도와 상징을 함께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은 7개의 상설전시관, 2개의 기획전시실, 1층 중앙의 어차(御車)까지 총 10개의 전시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복식은 제1~3전시실에 전시되어있으며, 영친왕 일가의 복식유물 등 왕실복식유물들을 복원하여 조선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왕실의 복식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식관련 기획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조선의 왕비와 후궁’(2015.7.7~8.30)을 개최했으며, 다양한 왕실 여성들의 삶과 내명부의 역할, 지위가 반영된 복식부터 소품, 그 모습을 담은 그림과 글 등이 전시되었다. ‘돌아온 덕혜옹주 유품’(2015.8.25.~9.6) 특별 공개전에서는 덕혜옹주의 유품 7점으로, 용보가 있는 녹색당의와 백복다남(百福多男)문자무늬 등이 들어간 스란치마, 저고리, 치마, 속옷 등이 전시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복식유물 전시로는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2018.6.27~9.2)이 있다. 태항아리와 연관된 왕가의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조선왕실의 어린 아이 복식 중 덕혜옹주의복이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 14> 덕혜옹주 돌띠저고리와  
 풍차바지  
 -연구자촬영(2018)



<그림 15> 덕혜옹주 당의와 스란치마  
 -연구자촬영(2018)

복식유물 관련 발간자료로는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이 대표적이고, 고문헌을 국역하여 발간한 『덕은공주 가례등록』, 『황태자 가례도감의궤』 등도 있다. 소장품 도록으로 『영친왕일가 복식』, 『궁중복식 본』, 『궁중보자기』 등이 있으며, 특별전 도록으로는 『아름다운 궁중자수』, 『조선왕실의 포장예술』 등이 발간되었다. 이 외에도 2007년부터 고궁문화 학술지, 특별전과 연계한 학술세미나자료 등을 발간하고 왕실 관련 문화 유물에 대한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화 하여 관람객은 물론 학술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궁뜨락’뮤지엄샵은 조선 왕가의 문화유물을 현대화 한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상품 및 디자이너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궁뜨락의 상품들은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단 전통문화상품 쇼핑몰(KHmall)의 상품과 한국전통문화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구체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6><sup>17)</sup>과 같다.

<표 6> 국립고궁박물관 현황

| 항 목   |               | 내 용   |
|---|---------------|---|
| 설립연도  |               | · 1908년 대한제국 제실박물관 발족 후 2005년 개관  |
| 운영형태  |               | · 국립  |
| 시설현황  |               | · 상설전시실(7개) & 기획전시실(2개), 어차전시   |
| 연 관람객 수   |               | · 2014년 : 대략 210만 여 명<br>· 2015년 : 대략 136만 여 명<br>· 2016년 : 대략 120만 여 명<br>· 2017년 : 대략 121만 여 명  |
| 보유복식 소장품 현황   |               | · 전체 : 대략 4만 여 점<br>· 복식유물 : 의상류 및 장신구류 포함 3천 여 점   |
| 대표 복식소장품  |               | · 영친왕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국가민속문화재 265호)  |
| 전<br>시<br><br>2<br>0<br>1<br>4<br><br>-<br>2<br>0<br>1<br>8 | 상설            | · 제1전시실 : 조선의국왕<br>· 제2전시실 : 조선의궁궐<br>· 제3전시실 : 왕실의생활<br>· 제5전시실 : 대한제국<br>· 제8전시실 : 궁중서화<br>· 제9전시실 : 왕실의례<br>· 제10전시실 : 과학문화            |
|   | 기획<br>및<br>특별 | · 14' 아름다운 궁중채화 외 5회<br>· 15' "돌아온 덕혜옹주 유품" 특별공개 외 6회<br>· 16' 조선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 외 3회<br>· 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외 4회<br>· 18'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 외 1회 |

## (2) 교육·체험 프로그램

국립고궁박물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어린이, 가족, 학급단체, 성인, 함께나눔(특수학급, 다문화, 군인, 장애단체, 어르신 단체)으로 분류되며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왕실문화 체험을 비롯한 왕실의 역사와 유물들에 대한 학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프로그램의 경우 저학년



과 고학년으로, 성인의 경우 임신부와 교사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는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초등학생 동반의 가족 프로그램인 ‘나도왕비처럼’은 <그림 16><sup>18)</sup>과 같이 왕비의 옷차림, 전시실 유물 관람, 왕비옷 입어보기, 땀잠 만들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왕과 왕비의 복식과 궁중 예복에 대하여 학습하고, 전시실의 유물을 관람 후 보고 배운 것을 활동지로 해결해 보는 체험도 있고, 참여 아동들이 축소 사이즈로 제작된 적의를 착용해 보는 체험도 마련되어 있으며 머리 장신구인 땀잠 만들기에서는 아동이 구슬도 달고 채색도 해봄으로써 제작과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6> 나도 왕비처럼 프로그램  
-국립고궁박물관연보 제5호, 144

타 박물관과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왕실태교’가 있다.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그림17><sup>19)</sup>과 같이 귀한 아기씨를 위한 왕실의 태교방법을 응용하여 ‘우리 아이 왕자님 공주님처럼 키우기’라는 주제로 왕실태교 강의와 음식만들기, 배냇저고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림 17> 왕실태교 프로그램  
-국립고궁박물관연보 제5호, 151

이 외에도 웹사이트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영상강의를 제작하여 왕실문화 인문강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조선의 국왕, 조선의 왕비, 조선왕실의 기록문화, 조선왕실의 생활, 조선왕실의 복식, 대한제국의 정치와 외교, 대한제국기 국가 상징의 제정, 대한제국의 현장 등 조선 왕실문화를 온라인 영상 강좌로 제작하여 이야기와 유물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 할 수 있는 매체로 제공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실시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7><sup>20)</sup>과 같다.

<표 7>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4~2018년)

| 항 목                               |            | 내 용  |
|-----------------------------------|------------|--|
| 교육<br>·<br>체험<br>프<br>로<br>그<br>램 | 어린이<br>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박물관에 놀러 온 공주님, 왕자님 외 9개</li> <li>· 15' 교과서 속 왕실유물 외 12개</li> <li>· 16' 시계 왕국 조선 외 13개</li> <li>· 17' 움직이는 보물 수레 외 9개</li> <li>· 18' 임금님을 알고 싶어요 외 6개</li> </ul>   |
|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도전! 내의원 어의 외 2개</li> <li>· 15' 하늘을 읽는 여행 외 5개</li> <li>· 16' 함께 짓고 부르는 궁중 노래, 악장 외 7개</li> <li>· 17' 나도 왕비처럼 외 7개</li> <li>· 18' 의궤로 만나는 왕실의 나들이 외 7개</li> </ul>  |
|                                   | 성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왕실태교(침선반) 외 12개</li> <li>· 15' 박물관 문화연수 외 12개</li> <li>· 16' 수라간 최고상궁 외 14개</li> <li>· 17' 왕실 문화 심층탐구 외 12개</li> <li>· 18' 조선 왕실의 인장 외 9개</li> </ul>  |
|                                   | 문화<br>사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찾아가는 왕실태교(미혼모 기관·서울시 보건소 대상) 외 7개</li> <li>· 15' 찾아가는 박물관 - 왕과 왕비를 만나다(지방아동대상) 외 7개</li> <li>· 16' 찾아가는 박물관 - 임금님의 행차(지방) 외 7개</li> <li>· 17' 만들며 함께하는 왕실문화 외 3개</li> <li>· 18' 마음을 더한, 할머니의 선물 외 2개</li> </ul> |

이상으로 국내의 복식박물관 세 곳의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복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대표적이며,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에서도 민속복식 및 왕실복식 등 복식유물을 소장하고 보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은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기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복식 관련 전시

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출토복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와 유물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복식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출토복식에 대한 전시와 특별전은 1981년 이래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패션쇼 및 관련 체험 행사 등을 함께 개최하고 있어 국내 유일의 한국복식 전문 박물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담고 있는 종합적인 박물관으로써, 의·식·주를 비롯한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민속관련 전래유물 등에 대한 보존 작업과 전시, 데이터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민속복식유물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시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관 유물과의 마네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식의 착용 사례와 용도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특히, 어린이 박물관을 통한 아동의 시각에 맞춘 주제별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왕실생활 전반적 내용을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왕실의 생활관 및 기획·특별전을 통하여 왕실복식의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식과 관련한 왕실의 장신구, 문양, 상징물 등이 함께 전시 되어 있어 왕실 복식의 전반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유물을 직접적으로 전시하기 보다는 실사 촬영 및 OLED 액정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전시품을 보는 듯한 입체적인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더욱 구체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나도 왕비처럼’, ‘왕실태교’와 같이 왕실에 대한 학습과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 2. 국외

국외의 복식박물관 중 복식관련 유물의 자료가 많고 복식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주요 박물관을 선정하여 최근 5년(2014년~2018년 상반기)간 박물관의 현황과 1년(2018년)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관하여 조사했다.

### 1)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Metropolitan Museum of Art)

#### (1) 현황조사 및 분석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는 1870년 설립 이후 1880년 현재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 박물관이다.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국가의 미술품, 회화작품, 조각품, 복식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937년 패션 학예부문을 설립하여, 패션 및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물과 소장품들을 전시, 보존 하고 있다. 전 세계 종합 미술품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5번가의 분관(The Met Fifth Avenue)을 중심으로, 유럽 예술품과 건축물을 조합하여 만든 회랑인 메트로폴리탄 클로이스터스(The Met Cloisters)와 20~21세기의 현대 미술을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매디슨가의 메트로폴리탄 브로이어(The Met Breuer) 두 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8><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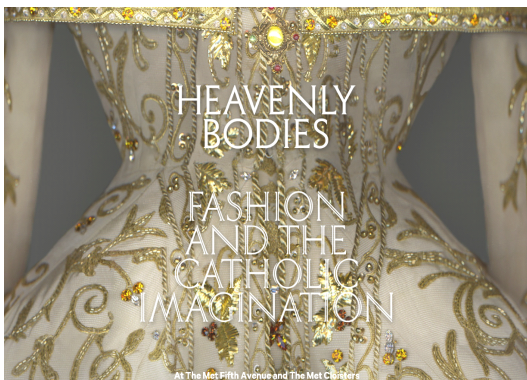
<그림 18>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전경

-<https://www.metmuseum.org>



대략 300만 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식유물은 3만 5천 여 점 이상이다. 시대별, 국가별, 유물특성별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복식유물들의 경우 대부분 20세기 디자이너들의 작품이다.<sup>22)</sup>

매년 패션 전시행사로 디자이너, 다양한 주제 등을 담은 멧갈라(Met Gala)를 개최하고 있다. 주제에 따른 유물·소장품, 유물을 모티브로 한 패션작품들로 전시·행사이며 유명인들과 레드카펫 행사, 갈라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한 수익금은 사회로 환원하고 있다. 그 예로 2018년도의 ‘Heavenly Bodies-Fashion and the Catholic Imagination’은 가톨릭관련 이미지가 반영된 다양한 작품과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이와 관련한 갈라쇼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그림 19><sup>23)</sup>, <그림 20><sup>24)</sup>.



<그림 19> ‘Heavenly bodies’ 전시  
-<https://www.metmuseum.org>



<그림 20> ‘Heavenly bodies’ 전시  
-<https://www.metmuseum.org>

본 박물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박물관의 전시·행사·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전시와 컬렉션, 박물관 내·외부 360° 프로젝트 영상, 해외전시, 멧키즈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프로젝트, 출간물 등의 홍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뮤지엄샵은 대규모의 박물관답게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를 진행하며 도서·엽서·마그넷 외에도 주얼리·아동용품·홈데코·유물축소 조각품 등 자체 제작상품과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이며 전시유물들의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구체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8><sup>25)</sup>과 같다.

<표 8>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현황

| 항목          |         | 내용   |
|-------------|---------|--|
| 설립연도        |         | • 1870년 설립, 1937년 패션학예부분 설립  |
| 운영형태        |         | • 민간   |
| 시설현황        |         | • 메트로폴리탄 본관(The Met fifth Avenue)의 약185,806㎡규모의 전시관, 클로이스터스관(The Met Cloisters), 브로이어관(The Met Breuer)   |
| 연 관람객 수     |         | • 2014년 : 대략 600만여 명<br>• 2015년 : 대략 630만여 명<br>• 2016년 : 대략 670만여 명<br>• 2017년 : 대략 700만여 명   |
| 보유복식 소장품 현황 |         | • 전체 : 대략 300만여 점 이상<br>• 복식유물 : 대략 3만 5천여 점 이상  |
| 대표 복식소장품    |         | • 찰스제임스의 소재컬렉션, 디올의 뉴욕<br>• 살바토레페라가모의 슈즈 컬렉션   |
| 2014-2018   | 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메트로폴리탄 본관(The Met Fifth Avenue)</b> : 전세계 국가별 시대별 다양한 유물 등 전시(현대미술, 아프리카미술,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그리스와 로마 미술, 유러피안 조각물과 장식미술, 중세미술, 이집트 미술, 유러피안 명화, 1250-1800, 악기, 아시아미술, 로버트레먼 컬렉션, 아메리칸윙, 병갑)</li> <li>• <b>메트로폴리탄 클로이스터스관(The Met Cloisters)</b> : 전세계 국가별 시대별 다양한 건축양식 및 장식예술 등 전시 (로마네스크 홀, 푸엔티두에냐 예배당, 생-기엠 클로이스터, 랑공 예배당, 풍토챗터하우스, 쿡사 클로이스터, 초기 고딕양식의 홀, 고딕 예배당, 유리 갤러리, 본네퐁 클로이스터, 트리 클로이스터, 보파르트 룸, 유니콘 태피스트리 룸, 9마리 말 태피스트리 룸, 메로드 룸, 후기 고딕양식의 홀)</li> <li>• <b>메트로폴리탄 브로이어관(The Met Breuer)</b> : 20-21세기 현대미술 전시, 공연, 교육 등을 진행하는 미술관으로, 다이앤아버스(Diane Arbus, 1923-1971)의 사진전시, 현대 미술관련 전시(Like Life: Sculpture, Color, and the Body) 등을 진행하고 있다.</li> </ul> |
|             | 기획 및 특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Charles James: Beyond Fashion 외 1회 (찰스제임스 : 패션을 넘어서다)</li> <li>• 15' Jacqueline de Ribes: The Art of Style 외 1회 (재클린 드 리브 : 스타일의 예술)</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 Manus x Machina: Fashion In An Age Of Technology<br/>외 16회 (손x기계 : 기술시대의 패션)</li> <li>• 17'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 외 18회<br/>(레이 가와쿠보/콤데 가르송)</li> <li>• 18' Heavenly Bodies:Fashion and the Catholic Imagination<br/>외 12회 (헤븐리 바디스 : 패션과 가톨릭 상상력)</li> </ul> |
|--|--|---|

## (2) 교육·체험 프로그램

가족·청소년·성인·학생·교사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인턴십 등의 청소년 대상 진로관련 프로그램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매체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을 위한 ‘멧키즈’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이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관람 및 체험, 교육 활동들을 말한다. 아동대상 눈높이 해설과 능동적인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자체 블로그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정보를 얻고 참여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연령별로 활동 주제별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예술 전문 박물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Teen Night’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예술작품 제작, 음악을 듣고 만들어보기, 댄스나 연극 등의 퍼포먼스 창작해보기 활동으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관내 곳곳에서 드로잉을 하고 모사하는 등 미술작품 활동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감상을 통한 토론 프로그램도 있어 관람객들의 체계적인 주제토론과 창의적인 의견공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생과 학자, 교육자들에게 전시 및 유물 관련 전문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전시투어·단체교육·개별스터디·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 학예사와 관련 직종, 연구자 양성을 위한 인턴십을 매년 진행하여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신체가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시설 구비와 그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보호자와 함께 하는 그룹 체험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 개별 맞춤형 전시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등은 매우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실시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표 9>와 같다.<sup>26)</sup>

<표 9>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8년)

| 항목                                |                | 내용  |
|-----------------------------------|----------------|---|
| 교육<br>·<br>체험<br>프<br>로<br>그<br>램 | 아동<br>&<br>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멧키즈(Metkids)</b> : 어린이들이 과거의 미술작품들과 영상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개성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진행</li> <li>· <b>패밀리 프로그램</b> :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전시 및 작품들을 보고 배우며 창조해내는 상호작용 프로그램</li> </ul>   |
|                                   | 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rt Explore(11-14세)</b> : 갤러리를 다니며 배우고 이야기하는 활동</li> <li>· <b>Saturday Sketching(11-18세)</b> : 갤러리 미술작품 스케치</li> <li>· <b>Summer Programs(11-18세)</b> : 심층적 컬렉션 탐색</li> <li>· <b>Teen Night(13-18세)</b> : 퍼포먼스, 음악, 예술제작 등</li> <li>· <b>Teen Studio(15-18세)</b> : 제작워크샵 통한 창의력 발휘·경험</li> <li>· <b>Career Labs(15-18세)</b> : 예술분야 커리어, 전문가 학습, 기술습득</li> </ul> |
|                                   | 성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et Creates</b> : 아트드로잉, 스튜디오 워크샵</li> <li>· <b>Met LiveArts</b> : 예술 퍼포먼스</li> <li>· <b>Met Tours</b> : 봉사자와의 가이드투어, 전문가와의 투어, 하이라이트 컬렉션투어, 아티스트와의 투어, 인턴 인사이트 등</li> <li>· <b>Met Speaks</b> : 미술작품, 극작품 등의 아티스트, 전문가 강연</li> </ul>   |
|                                   | 대학생<br>및<br>학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턴쉽</b> : 박물관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li> <li>· <b>펠로우쉽</b> : The Met collection 및 Museum practice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및 해외의 학자들을 지원</li> <li>· <b>관찰의 눈(Observant Eye)</b> : 면밀한 관찰과 토론을 통한 예술 작품의 이해와 조사를 학습</li> <li>· <b>경력자와의 대화(career Insight)</b> : 박물관 내 자신의 작업에 대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과 대화하고 기술에 대하여 학습</li> </ul>   |
|                                   | 교육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K-12 교육자 프로그램</b> :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제 간 커리큘럼 통합, 사사물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공 (워크샵, 여름학교 등)</li> <li>· <b>학교 그룹</b> : 교사와 학생들의 박물관 가이드를 통한 컬렉션 탐색</li> </ul>   |
|                                   |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맹인/부분 시력자</b> : 구술 이미징 및 터칭 투어, 미술 워크샵</li> <li>· <b>발달장애/학습장애/자폐증</b> :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워크샵</li> <li>· <b>치매환자 및 간병 파트너</b> : 특화된 갤러리 및 교실 예술 프로그램</li> <li>· <b>청각장애/청력 손실자</b> : 수화프로그램, 통역 및 실시간자막 제공</li> </ul>  |

## 2)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 (1) 현황조사 및 분석

영국은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함께 20세기에는 세계정세의 중심에 있던 나라로 수많은 국가들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의 시초는 1857년 설립된 영국의 사우스켄싱턴 박물관이다. 영국왕실의 빅토리아여왕과 부군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관과 앨버트홀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기의 서양복식과 왕족·귀족복식에 관한 전시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복의 구성·형태·형식에 관한 전시와 근현대 패션을 선도했던 디자이너들의 작품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복식관련 전시 관람과 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소장품은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공예품들과 복식유물들이 있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약 4백5십만 여 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복식유물은 드레스 등 의복 및 섬유류를 포함하여 대략 5만 여 점 이상 보유하고 있다.<sup>27)</sup> 그 중 대표적 복식유물은 수 세기에 걸친 궁정드레스·왕실복식·워스의 이브닝가운·찰스제임스의 패딩재킷·디올의 뉴룩슈트·비비안웨스트우드의 드레스 등이 있으며, 서양복식사에 영향을 준 다양한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세 이후의 소중한 복식 자료로서 다루어 보존되어지고 있다.

전시관은 아시아, 소재&테크닉, 유럽, 현대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아시아관은 불교, 이슬람계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기술관은 건축, 도자, 패션, 가구, 유리, 금속, 주얼리, 미술품, 사진, 초상화, 스테인글라스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응용한 전시관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관은 영국의 중세시대와 근현대, 유럽의 중·근세, 르네상스 등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관에서는 20세기의 작품 등 다양한 현대의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매년 훌륭한 유물 및 교류전시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유물들과 소장품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기획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과 어린이박물관을 나누어 연령과 관객층에 적합한 기획전시를 구성하였고, 그 중 진행되었던 복식 관련 전시로는 ‘The Glamour of Italian Fashion 1945-2014(2014)’, ‘Wedding Dresses 1775-2014(2014)’,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2015)', 'The Fabric of India(2015)', 'Undressed: A Brief History of Underwear(2016)', 'Opus Anglicanum: Masterpieces of English Medieval Embroidery(2016)', 'Balenciaga: Shaping Fashion(2017)' 등이 진행되었다. 알렉산더 맥퀸과 발렌시아가 등 디자이너를 재조명하여 현대 복식의 가치와 영감을 부여하였고, 2016년에는 <그림 21>과 <그림 22>와 같이 서양복식사에서 복식의 기본인 속옷과 옷의 착장법, 구성과 재료, 디자인 등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도록 관람 방향에 따라 시대별, 착용순서별로 전시 되어 있어 복식관련 전문가나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 Undressed : A Brief History of Underwear  
-연구자 촬영(2016)



<그림 22> Undressed : A Brief History of Underwear  
-연구자 촬영(2016)

복식관련 발행물로는 전시소장품, 기획전시별 도서와 어린이관람객을 위한 일러스트북과 눈높이 전시도서 등이 있으며, 소장품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 엽서, 다이어리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은 뮤지엄샵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의 경우 '런던의 유행을 선도하는 뮤지엄샵'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복식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다. 전시 관련 도록·재현상품·브랜드 콜라보레이션제품 등 전 세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표 10><sup>28)</sup>과 같다.

<표 10>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현황

| 항목                                      |         | 내용  |
|---|---------|---|
| 설립연도                                    |         | • 1852  |
| 운영형태                                    |         | • 국립  |
| 시설현황                                    |         | • 빅토리아관과 앨버트홀로 이루어진 대략 5만 제곱미터 규모의140여 개의 갤러리, 기록보관소, 어린이박물관 등  |
| 연 관람객 수                                 |         | • 2013년 ~2014년 : 대략 364만 여 명<br>• 2014년 ~2015년 : 대략 373만 여 명<br>• 2015년 ~2016년 : 대략 392만 여 명<br>• 2016년 ~2017년 : 대략 343만 여 명<br>• 2017년 ~2018년 : 대략 439만 여 명  |
| 보유 소장품 현황                               |         | • 전체 : 대략 450만 여 점<br>• 복식유물 : 의복, 섬유류 대략 5만 여 점 이상   |
| 대표 복식소장품                                |         | • 위스의 이브닝가운, 찰스제임스 패딩재킷<br>• 디올 뉴룩슈트, 비비안웨스트우드 드레스  |
| 전시<br><br>2014<br>14<br>-<br>2010<br>18 | 상설      | • <b>아시아관</b> : 불교, 중국, 이슬람권중동국가, 한국, 일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br>• <b>소재&amp;테크닉</b> : 건축, 도자, 현대유리공예, 패션, 가구, 유리, 철제품, 주얼리, Leighton(영국의 화가, 조각가), 금속제품, 그림, 사진 센터, 초상 미니어처, 인쇄 및 도면, 은세공품&스테인글라스, 조각상, 은, 타피스트리, 연극,영화&퍼포먼스<br>• <b>유럽</b> : 영국의1500~1760년, 영국의1760~1900년, Cast Courts, 유럽 1600~1815년, 중세&르네상스1350~1600년, 라파엘 카툰, 조각상1300~1600년)<br>• <b>모던</b> : 20세기, Rapid Response Collecting |
|   | 기획 및 특별 | • <b>14'</b> Wedding Dresses 1775-2014 외 10회<br>(웨딩드레스 1775-2014)<br>• <b>15'</b>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외 9회<br>(알렉산더 맥퀸 : 세비지 뷰티)<br>• <b>16'</b> Undressed: A Brief History of Underwear 외 7회<br>(언드레스드: 언더웨어 속옷의 역사)<br>• <b>17'</b> Balenciaga: Shaping Fashion 외 8회<br>(발렌시아가: 셰이핑 패션)<br>• <b>18'</b> Fashioned From Nature 외 4회<br>(자연으로부터 온 패션)                          |

## (2) 교육·체험 프로그램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의 경우 복식을 전문으로 연구, 보존, 학습할 수 있는 The Clothworker's Centre가 마련되어있다. 텍스타일과 패션 중심의 유물연구와 방문자 및 조사자를 위한 자료제공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복·태피스트리·카펫·악세서리·언더웨어·18세기 궁정드레스·현대 오피꾸뛰르 등 전 세계 모든 옷을 다루고 있으며 그룹스터디·세미나·관련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복식 관련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개설된 프로그램들은 강좌, 워크샵, 회담, 토크강연 및 체험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인, 청소년, 대학생, 선생님, 가족, 지역사회 등으로 세분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워크샵과 갤러리 세션을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은 예술과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과의 런치특강, 저녁회담, 토크강연 등에 참여하여 미술관과 소장품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소장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의 습득, 미술품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학습아카데미(Learning Academy)’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와 코스 프로그램이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 및 해외 각국의 문화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수집품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박물관내의 데이터와 유물 관련 리소스 제공과 학생들과의 관람 및 수업과 교육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에서 실시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8년)

| 항목                                |                 | 내용  |
|-----------------------------------|-----------------|---|
| 교육<br>·<br>체험<br>프<br>로<br>그<br>램 | 아동<br>&<br>가족   | · V&A컬렉션 및 기획전시 등을 통한 놀이와 학습 장려   |
|                                   | 청소년<br>&<br>대학생 | · 초등학생 대상 워크샵 : 전시 및 전시프로그램 등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학습제공<br>· 중·고등/대학생 대상 프로젝트 : 갤러리 기반의 세션, 큐레이터와 대화, 디자인랩 프로젝트 그래픽 수집 대회 등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지식, 호기심, 영감 습득                                 |
|                                   | 성인              | · 교육프로그램<br>코스 : 평일, 저녁, 주말 별 역사, 미술, 디자인, 퍼포먼스 과정<br>워크샵 : 창의적 참여, 새로운 기술 학습 도전 등<br>컨퍼런스 : 국제적 전문가와 컬렉션에 관한 토론<br>· 이벤트프로그램<br>패션, 디지털디자인, 건축 등의 관심있는 대상을 위한 워크샵, 강좌, 무료 축제 등의 프로그램 |
|                                   | 교육자             | · 15개월 과정 M.A 역사 학습<br>아티스트 주도 세션 참여, 최신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및 현대 창의적인 실무자, 박물관 전문가 및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술, 디자인 및 공연 컬렉션을 통한 실습수업관련 학습자료 제공  |
|                                   | 지역<br>사회        | · 박물관 레지던시 프로그램<br>소장품 및 기록담당 실무자가 상주하며 독자적인 접근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



### 3) 고베패션미술관

#### (1) 현황조사 및 분석

일본은 일찍이 개항한 이후 일본복식과 서양복식이 공존하였다. 일본 최초의 패션테마 미술관이며 대표적인 복식박물관인 고베패션미술관은 1997년에 개관하여 다양한 서양국가와 일본의 시대별 복식유물과 복원품, 재현작품 등을 제작·수집하고 있으며, 복식의 국적·시대·체형에 따라 의상에 적합한 마네킹 등을 직접 박물관 내에서 제작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3><sup>30)</sup>.



<그림 23> 고베패션미술관 전경

- <http://www.fashionmuseum.or.jp/english>

일본의 복식은 물론 서양복식의 전 시대적인 복식의 흐름을 연대별로 정리하여 접할 수 있게 전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컬렉션을 활용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전통복식과 미술품, 특히 패션관화를 소장하고 있어 다양한 시대별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식소장품들은 드레스 등 의상 관련 소장품이 9천 여 점, 패션사진이 1천 5백 여 점, 패션관화가 1천 5백 여 점, 복식 관련 서적이 3만 여 점 이상이며, 패브릭 샘플은 4만 여 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1)</sup> 이 중 복식 관련 서적의 경우 관내 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하며, 일본과 해외 패션 관련 장서 이외에도 20세기 초의 패션잡지, 스타일매거진, DVD, 비디오 CD 등의 시청각 자료도 보

유하고 있다. 이는 일반 관람객들의 열람이 가능하며,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그림 24><sup>32)</sup>.

기획 및 특별전시로는 테마에 따라 전시하는 ‘특별전’과 소장품들의 ‘컬렉션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전은 연내 4~5회 정도로 개최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의 복식에 대한 연구와 서양복식의 테마별 전시로 이루어진다. 사진이나 그림, 판화 자료를 중심으로 한 복원작품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시 사회적 배경과 복식의 형태, 트렌드에 대하여 결합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시도 운영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컬렉션 전시로는 ‘숫자로 보는 고베패션미술관’(2018.4.14.~2018.7.1.)가 있으며 숫자를 키워드로 한 18-20세기 명품 컬렉션전으로 소장품 34점과 각각 작품에 담긴 숫자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전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70여 개 국 민족의상의 섬유, 패션 플레이트 등으로 한 전시, 구조, 소재, 색채, 복원 등으로 나눈 연구전시를 진행하였다.

복식을 전문으로 연구·보존·학습할 수 있도록 오사카장음여자대학과 협동하여 박물관 소장유물 복원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전시와 기타 복식관련 발간 자료는 세계의 패션전, 낭만기모노전, 일본 남자 복식전, 디지털×패션전, 드레스 컬렉션 등이 발간되었으며, 연구와 복원을 통한 서양복식의 시대별 드레스들의 옷본 해설서 및 제작도록을 발간하고 있다.

박물관은 블로그, SNS를 통해 박물관의 전시와 소식을 전달하고 관람객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관내 오프라인 뮤지엄샵에서는 각종 소장품들을 모티브로 한 오리지널 상품 등을 <그림 25><sup>33)</sup>와 같이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림 24> 관내 라이브러리

-<http://www.fashionmuseum.or.jp/library>



<그림 25> 뮤지엄샵 오리지널 상품

-<http://www.fashionmuseum.or.jp/goods>

이는 통신판매로도 구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베패션박물관의 다양한 연대별 복식 흐름 등을 담은 마우스패드, 손수건, 토트백, 드레스 옷본 해설서 등을 갖추고 있어 복식 활용 자료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 학예연구원 하마다쿠니오는 인터뷰에서, “만질 수 없는 귀중한 의상을 복원하여 만지는 것은 물론 입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옷은 장착하지 않으면 진짜 의미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복식 복원 뿐 아니라 착용을 위한 과거 복식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작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베패션미술관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12><sup>34)</sup>와 같다.

<표 12> 고베패션미술관 현황

| 항목                |         | 내용   |
|-------------------|---------|--|
| 설립연도              |         | · 1997   |
| 운영형태              |         | · 고베시 산업 진흥재단 운영   |
| 시설현황              |         | · 1,000㎡ 규모의 전시관, 세미나실, 오르비스홀, 도서관 등   |
| 연 관람객 수           |         | · 2014~2017년 : 매년 대략 3만여 명 내외  |
| 보유 소장품 현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레스 등 의상 : 대략 9천 여 점</li> <li>· 패션 사진 : 대략 1천 5백 여 점</li> <li>· 패션 관화 : 대략 1천 5백 여 점</li> <li>· 패션 관련 서적 : 대략 3만 여 점 이상</li> <li>· 패브릭 샘플 : 대략 4만 여 점 이상</li> </ul>   |
| 대표 복식소장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기 이후 서양복식 복원품</li> <li>· 마들렌비오네, 랑방 등 디자이너 작품</li> </ul>   |
| 2014<br>·<br>2018 | 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 역사 의상(1730~1900년대)</li> <li>· 현대 의복(1900~2000년대)</li> <li>· 70개국 민족 의상</li> <li>· 패션 사진</li> <li>· 패션 플레이트(역사적 복식 관화)</li> <li>· 영화</li> </ul>   |
|                   | 기획 및 특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世界のファッション -100年前の写真と衣装は語る- 외 4회<br/>(세계의 패션 - 100년 전의 사진과 의상이 말한다-)</li> <li>· 15' 日本衣装絵巻 -卑弥呼から篤姫の時代までの 3회<br/>(일본 의상 두루마기 -히미코로부터 독진의 시대까지)</li> <li>· 16' こどもとファッション -小さな人たちへのまなざし 외 3회<br/>(아이와 패션 - 작은 사람들의 눈빛)</li> <li>· 17' 宮脇綾子 美しいアプリケ -布がつむぐ暮らしの装い 외 3회<br/>(미야와키아야코 아름다운 아프리카 - 옷감을 엮은 삶의 옷차림)</li> <li>· 18' タータン展 スコットランドからの贈りもの 외 2회<br/>(타탄전 스코틀랜드로부터의 선물)</li> </ul> |

## (2) 교육·체험 프로그램

본 미술관에서는 설립당시부터 패션 산업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 소재·색채·장식·역사·디자이너·사회·미디어 총 7개의 카테고리로 패션 강좌를 운영해 왔으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및 아동 관람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었던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은 중고 옷이나 추억의 천 조각을 이용한 팬더 인형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스스로 인형을 제작하면서 기본적인 바느질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SNS사진 콘테스트로 진행하는 이벤트로도 연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관람객이나 학생대상의 복식 강좌 및 복식 문화 세미나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연 내 대략 3~4회 정도로 개최되고 있으며 복식 소장품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의상의 시대적 배경 및 디테일 부분에 대한 학습을 거쳐 디자인 요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세미나 프로그램은 복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패션전문 미술관으로 개관하였지만 지방에 위치하여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과 교류하고 있다. 미술관 내의 다양한 전시유물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글 아트 프로젝트와 연계한 스트리트 뷰를 제공하여 인터넷 상으로 관람 가능하도록 구축하기도 하였으며, 미술관의 소장품과 서양복식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교육 자료로 배포하였으며 박물관의 다양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고베의 지역 산업 시리즈’ 영상을 통해 지역의 복식 산업 등을 소개하는 자료도 개방하는 등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교육 관련 자료를 다수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베패션미술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표 13><sup>35)</sup>과 같다.

<표 13> 고베패션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2018년)

| 항목                                |                          | 내용  |
|-----------------------------------|--------------------------|---|
| 교육<br>·<br>체험<br>프<br>로<br>그<br>램 | 단체                       | · 소장품과 패션을 테마로 한 강좌<br>패션산업 종사자, 학생, 복식 이외 예술 종사자 참여  |
|                                   | 개인강좌<br>및<br>복식문화<br>세미나 | · 고베패션미술관 컬렉션 엄선 작품 실물 해독 감상<br>매년 「디자이너」 「시대」 「민족」 분야로 개최<br>스키아파넬리(1937년)<br>엠펙이어스타일슈미즈드레스(1800-1805년경)<br>베르베르 여성 의상(20세기) |
|                                   | 워크숍                      | · 유메워크숍 : 붓으로 그려 장식하고, 즐기는 유메디자인 외 2개   |

국외의 복식박물관 세 곳의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외에서는 복식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박물관부터 장식미술 및 의복관련 부자재 등 전문적인 박물관이 발달했다. 그 중 미국, 영국, 일본 세 국가의 대표적인 복식 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와 영국의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은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와 그 규모가 상당하며, 그 중 복식유물은 시대별, 종류별, 나라별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베패션미술관은 일본의 전통복식을 기본으로 하여 서양복식 소장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와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은 복식전문박물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식유물과 관련 소장품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자체 행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는 미국에 위치한 대형 박물관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유물과 복제품을 다루고 있다. 그중 복식유물의 경우 유럽권의 다양한 복식유물들과 패션사에 업적을 남긴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의 작품 등을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연령별 대상별



다양화된 프로그램과 인턴십·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매년 진행되는 ‘멧갈라(Met Gala)’라고 할 수 있다. 매 해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유물들과 디자이너 작품들을 전시하고, 유명인들을 통해 매체에 노출시킴으로써, 패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품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은 영국의 대표적인 패션·장식미술·미술품 등을 다루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다양한 주제를 담은 패션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시의 특징은 각각의 복식유물이 가진 특징과 의미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된 전시자료와 디스플레이구성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또한 유물활용 상품이나 전시연계 패션상품 등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다. 유독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샵의 상품들은 관광객부터 현지인들까지 인기가 많을 정도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고베패션미술관은 일본의 최초의 패션전문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다. 고베의 섬유산업과 항만도시로 예로부터 외부로의 교류가 활발했고, 패션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양복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양복식의 시대별 변천과 유물들의 복제 등을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패턴 등을 정립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3회 가량의 복식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복식관련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복식 관련 박물관들의 대략적인 현황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에는 복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이 발달하였지만, 국내에는 복식전문 박물관이 드물다는 점이다. 한국복식을 전문으로 연구, 전시 하는 박물관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유일하며, 그 외의 박물관들은 복식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아 한국복식에 대한 꾸준한 연구나 그를 바탕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이 발달하지 못했다.

둘째, 한국복식유물의 활용도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복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으나,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로 들면 미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아트는 매 해 복식유물과 미술품 등을 주제로 한 ‘멧갈라(Met Gala)’ 쇼와 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복식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복식유물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외의 박물관에 비해, 국내 박물관의 경우에는 한국복식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활용가능 한 한국복식유물의 종류와 자료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단순 전시해설투어나 소품제작, 착용체험 등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방면으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매체의 활용을 통해 전문적이고 대중적인 복식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국내·외 복식박물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네 가지 유형 즉, 전시연계유형, 체험유형, 세미나 및 강연유형, 교과연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시연계유형은 전시를 관람하며 주어진 학습지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으로 빈 칸 채우기, 그림그리기, 생각적기 등 전시 관람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을 도출해 내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인쇄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하였다. 체험유형은 역할 및 착용과 같은 실제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동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아동들이 직접 하나의 역할을 맡아 보거나 전시품이나 관련도구 등의 모형으로 체험해 보고 복식유물 재현품 등을 착용 해 보는 등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세미나 및 강연유형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주로 복식유물이나 역사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되며 전문적 지식 교류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진행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연계유형은 학급단체 및 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 및 역사 및 교과관련 주제와 전시 등이 연관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를 통한 관람객들의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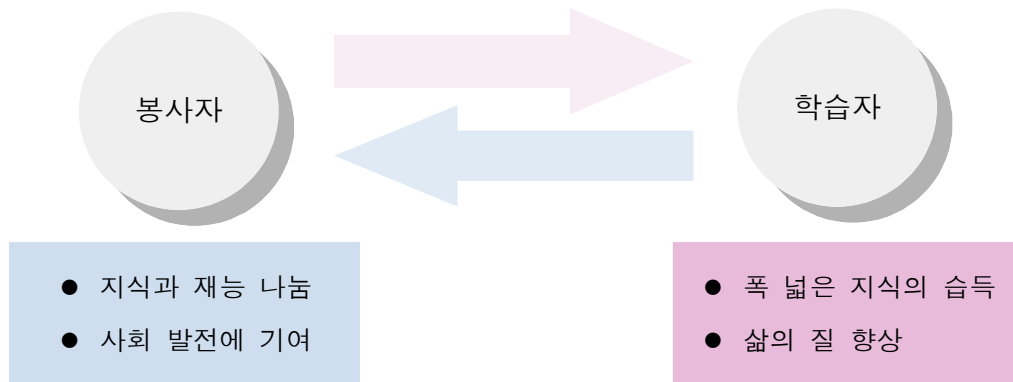
### Ⅲ.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한국복식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의 의류학과 및 패션관련 학과에서 한국복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박물관 내에 이루어지는 한국복식 관련 프로그램들 역시 전문화된 복식박물관의 부재로 인해 체험 및 아동·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Ⅱ장에서 복식유물을 소장한 국내·외 박물관의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타 행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헌 및 실증조사를 진행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러닝을 도입,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교육·체험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서비스러닝은 봉사와 학습을 연계한 교수학습법이다. 1967년 William Ramsey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학생들의 봉사과 현장체험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통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이를 통해 경험과 성찰을 얻게 된다. 서비스러닝에 대한 정의로는 『대학교육과 봉사학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자는 “체험교육의 한 형태로서 학생들이 인간사회와 빈곤에 관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질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봉사학습에서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주·국가·범인류적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다. 즉 봉사학습의 대상인 인간사회의 수요는 지역사회의 수요로 정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sup>36)</sup>.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러닝은 ‘봉사자가 지역사회의 학습자에게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눔으로써 사회발전과 교육에 공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학습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봉사자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자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러닝은 봉사자와 학습자의 상호교류관계의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6>.



<그림 26> 서비스러닝 역할과 의의

서비스러닝은 일반적으로 대학 내의 교수학습법의 일종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학생조직의 자발적인 참여 및 활동을 통한 봉사-학습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최초로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사례는 미국에서 1985년 이후 경험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등장하게 된 서비스러닝이다. Chandler-Gilbert community College,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Marquette University, Colorado State University 등 다수의 대학에서 정규학습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 학점제 운영, 캡스톤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진행해왔다.<sup>37)</sup>

한국에서 서비스러닝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 적용 사례로 대표적인 곳은 서울여대 교수·학습센터이다. 2007년 이래로 교과과정에 서비스러닝을 도입하여 교과목과 지역사회봉사를 통합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교육, 경제, 복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러닝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복지관련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이 실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경우, 상호교류적인 교육 및 피드백과 성찰이 동반되므로 한국복지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설정과 학습자 중심의 설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한국복지유물을 활용하여 한국복지에 특화되고 다양화 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한국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봉사-학습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제공하는 대상은 봉사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상은 학습자로 표현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봉사자는 전문적인 한국복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학교육 및 일정교육을 이수하여 한국복식 관련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되며, 봉사자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연령, 국적, 관심도에 따라 인지정도 및 지식습득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학습자를 연령별, 대상별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한국복식관련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은 여덟 개이며, 향후 대학은 물론 봉사자들과 연계한 복식박물관 및 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덟 개의 각 프로그램 설계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료를 연구자가 제작하여 프로그램들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하였다.

## 1. 교육·체험 프로그램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한국복식유물 활용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중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서비스러닝의 주체인 ‘봉사자’와 ‘학습자’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봉사자가 제공하는 교육·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복식유물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실제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봉사자는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 받은 자, 한국문화·한국복식·패션 관련 동아리 구성원 등으로 일정교육을 통해 한국복식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된다. 학습자는 한국복식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동,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외국인 등이다.

본 연구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II장에서 전술하였던 교육·체험 프로그램 네 가지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전시연계, 체험, 세미나 및 강연, 교과연계유형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이고, 세미나 및 강연과 체험유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은 ‘All about Hanbok’이고, 체험유형 프로그램은 ‘Running & Learning Book’이며, 교과연계유형 프로그램은 ‘교과서 속 우리옷’이다.

본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바로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을 통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은 많은 경험과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학습효과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러닝과 같은 학생봉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소 전문적인 면은 부족하지만, 봉사자 역시 한국복식을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보다 학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지식전달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와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네 가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교육·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                     | 유형               | 교육·체험 내용                                 |
|----------------------------|------------------|--|
| 박물관을<br>탈출한 한복             | 전시연계             | · 유·아동 대상 스토리텔링                          |
| All about Hanbok           | 세미나 및 강연<br>+ 체험 | · 외국인 대상 한국복식 세미나<br>· 외국인 대상 한국복식 체험·제작 |
| Running & Learning<br>Book | 체험               | · 모든 연령 대상<br>· 활동하며 배우는 한국복식유물 컬러링북     |
| 교과서 속 우리옷                  | 교과연계             | · 중학생 대상 교과연계 학습 및 체험                    |

## 1)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스토리텔링 방식을 접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전시연계유형에 해당한다.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스토리의 내용을 딴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이며, 줄거리는 박물관을 방문한 유·아동들이 박물관에서 탈출한 공주당의를 찾는 내용으로 설계하였다.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사고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하였다. 유·아동 시기는 아동발달과정에 있어서 사고 및 인지발달의 확장시기로, 봉사자와 학습자간의 자유로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보는 등 유·아동에게 자연스러운 관심과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한국복식유물을 응용하여 제작된 스토리 중심의 활동으로, 봉사자와 학습자가 박물관 곳곳을 다니며 학습하는 액션러닝<sup>38)</sup>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유·아동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활동적인 학습을 통해 집중도와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쉬운 접근으로 아동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한복이라는 옷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인지시켜 주며, 한국복식에 대한 기본적 형태와 역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진행방법은 먼저 유·아동들에게 한국복식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와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교육한 후, 박물관 내 유물에 대한 가이드로 시작된다. 다음으로, ‘공주당의’가 탈출했다는 방송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주당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몽타주를 그리게 하고 탈출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공주당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실물 사진카드를 통한 퀴즈 맞추기 활동을 진행하여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봉사자는 한국복식관련 교육을 받은 자이며, 학습자는 4~7세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 장소는 박물관이며, 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단체 학습자의 경우 유·아동 단체 및 개별 방문을 통해 활동이 가능하며, 봉사자-학습자 간의 팀빌딩으로 하여 조별 대결구도를 통한 발표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인 학습자의 경



우 봉사자와 학습자 간의 1대1 퀴즈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의 내용은 <표 15>와 같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27>에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으로 설계 하였다.

<표 15>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내용  |
|------|---|
| 대상   | · 4-7세 유·아동   |
| 학습목표 | · 한복이 무엇인지, 누가 입었던 옷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짐<br>· 한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탐구함<br>· 한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상상함 |
| 교육내용 | · 박물관에 소장 되어있는 유물인 한복의 스토리를 통해 한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생각하고, 그려보게끔 하여 유·아동들이 직접 스토리를 완성 하도록 함 |
| 기대효과 | · 한국복식에 대한 관심 유도<br>· 한국복식에 대한 친밀함 유도   |



#01

봉사자 선생님이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 여행을 떠났어요.

#02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입었던 옷에 대해 알아 볼 거예요!”

-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 저고리와 바지, 치마
- 왕과 왕비, 공주들은?  
→ 왕실의복과 대례복
- 결혼식 때는 무얼입지?  
→ 혼례복



박물관에 들어선 친구들은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옛날 어른들과 또래 친구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고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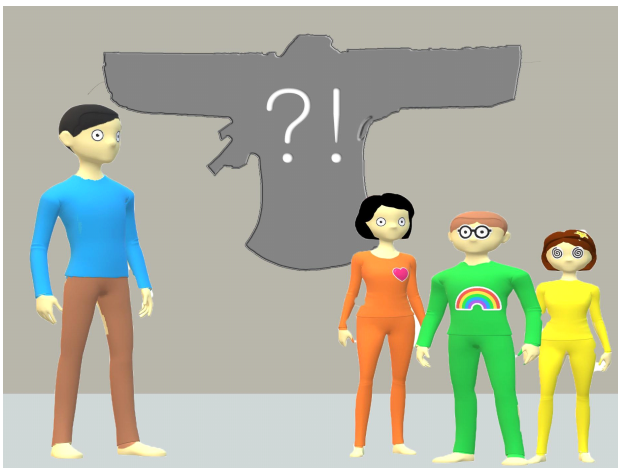
#03

그런데, 한 전시장은 옷은 온데간데없이 비어있네요?

“여기 있던 한복이 어디로 갔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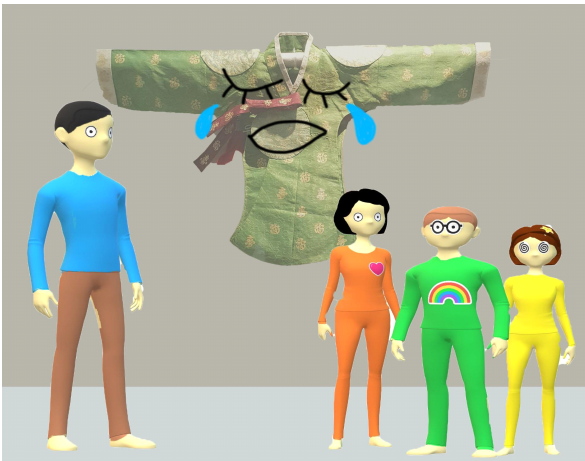
그때,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 알려드립니다, 전시관에 있던 공주당의가 탈출하였습니다. 공주당의를 보신 분은 바로 안내데스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큰일이네요, 공주 당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활동지**

| 생각해봅시다.                            | 그려봅시다.           |
|------------------------------------|------------------|
| ○ 공주당의 색깔은?                        | “공주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
| ○ 공주당이 살던 시대는?                     |                  |
| ○ 공주당의 주인은?                        |                  |
| ○ 공주당의 특징은?                        |                  |
| + 공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
| +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                  |
|                                    | ..               |
|                                    | ..               |



<그림 27>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04**

**박물관 활동지 - 부록3**

봉사자 선생님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박물관에서 한복이 탈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박물관에서 탈출한 한복은 어떤 모습일까?”
- 탈출한 공주당을 그려보기  
“한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돌아온 한복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05**

과거 공주가 입었던 아름다운 모습의 당의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낡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지도 보지도 않아요, 나도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밖을 돌아다니며 사랑받고 싶어요! 어린이 친구들, 나는 여러분과 닮은 여러분의 조상님들과 함께 살아왔던 옷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공주당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한복은 누가 입었던 옷일까요?  
한복은 어떻게 생겼나요?

## 2) All about Hanbok

본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다. 외국인들의 한국복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미나 및 강연유형과 체험유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명칭은 ‘All about Hanbok’으로, ‘한복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복식 교육·체험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한복의 인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들은 한국의 K-POP과 드라마, 화장품 등 해외로 수출되는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와 상품들을 통하여 한국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 최근에는 한복이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한복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해외에서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착용하기도 하고, 한국여행 시 한복을 입고 궁을 투어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복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 뒤에는 잘못된 지식의 한국복식과 명칭, 한복을 일명 ‘코리안 기모노’라고 명명하는 잘못된 인식도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2018년 9월 ‘hanbok’이라는 키워드로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 보았다. 해외의 의상점에서 한복을 ‘특별한 날에 입는 옷’으로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그 뒤에 ‘코리안기모노’라고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한국식 기모노라 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비 동양권 국가 사람들의 경우 소재나 색상, 외형을 보고 한복과 기모노를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한복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이 잘못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바른 한국복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복을 입는 모든 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을 찾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복식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정확한 역사와 형태, 아름다움을 알려주고자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TV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경우, 외국인관광객들이 서울과 각지를 찾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문화와 삶을 체험하는 여행을 하며 한국의 다양한 박물관과 유적지 등을 방문하여 한국인의 삶과 역사에 대하여 학습하고 공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박물관은 한국문화와 한국복식에 대한 공식적 소개의 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All about Hanbok’ 프로그램은 두 가지 주제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세미나 및 강연유형과 체험유형의 복합적 교육·체험 프로그램인 ‘Chronicles of Hanbok’은 ‘한복의 연대기’라는 의미로, 한복의 역사와 형태, 그리고 음양오행과 같은 동양사상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후, 한복의 착용법에 대한 영상시청과 착용체험활동으로 설계하였다. 체험유형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인 ‘Hanbok, made in korea!’는 한복의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한국복식유물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와 연관된 한국복식유물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상과 의미가 담긴 한복의 상징성과 미적 요소를 배우고 혼례복 및 돌복 등 한국복식을 착용하여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복의 제작과정 등을 직접 소개하고 한복과 관련한 공예와 기법 등을 직접 체험하여 금박 공예, 전통자수, 모자, 주머니 등으로 제작 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봉사자는 한국복식관련 교육을 받은 자로 설정이 되고, 학습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및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 장소는 박물관 및 한국문화 관련 기관 등에서 가능하며, 학습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All about Hanbok’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6>과 같고, 그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chronicles of Hanbok’의 설계는 <그림 28>과 같다.

<표 16> All about Hanbok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내용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li> </ul>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복식의 역사와 기본형, 미적요소에 대한 이해</li> </ul>  |
| 교육내용 | <p><b>(1) Chronicles of Hanbok</b><br/> <b>세미나 및 강연과 체험활동 유형의 복합적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의 연대기 소개, 한복의 시대적 이미지 변천에 대한 소개</li> <li>• 동양학적 사상과 한복의 적용 사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오방장 두루마기 유물</li> <li>→ 오방색이 적용된 생활소품</li> </ul> </li> <li>• 한복의 기본형태와 착용법</li> </ul> <p><b>(2) hanbok, made in korea!</b><br/> <b>체험활동 유형의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 유물의 종류와 한복을 만드는 과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박, 자수, 모자, 주머니 제작 및 체험</li> </ul> </li> <li>• 아동 돌복, 성인 혼례복식 체험</li> </ul>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고유의 복식으로서 한복에 대한 관심 유도</li> <li>• 한복의 세계화 발판 역할</li> </ul>  |



# Chronicles of Hanbok

Introduc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Hanbok'  
For foreigner

'Chronicles of Hanbok'  
한복의 연대기  
한복의 역사와 의미 소개

## what is Hanbok?

Hanbok is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r 5,000 years. Korean people wearing this costume several years, they make and develop various form and making skills. Also, this costume include many fortunate and hope things.

Hanbok is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garments, Basic style is 저고리(jeo-go-ri, jacket) and 바지(ba-ji, pants) or 치마(chi-ma, skirt).



<http://www.hanbokcenter.kr/user/nd97957.do>

page01. What is Hanb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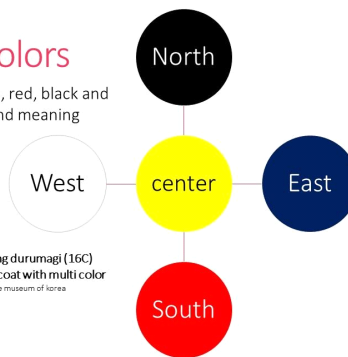
한복의 역사와 형태, 종류와 구성에 대한 학습

## Obang-saek, Five colors

The Five colors consisting of blue, white, red, black and yellow. And each color have direction and meaning



O-bang-jang durumagi (16C)  
Children's coat with multi color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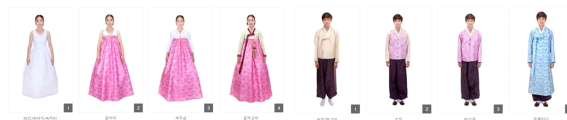


page 02. Obang-saek, Five colors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과 오방색에 담긴 의미, 한국 복식에서 음양오행사상 적용사례 학습

## How to wear Hanbok for woman and man

The video is How to wear Hanbok, made by Hanbok Advancement Center.



page 03. How to wear Hanbok for woman and man

성인남녀 착용영상 시청  
⇒ 한복 착용 체험



### 3) Running & Learning Book

박물관의 한국복식유물들을 컬러링북으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Running & Learning Book’이며, ‘뛰다’라는 의미의 ‘Running’과 ‘배우다’라는 의미의 ‘Learning’의 합성어로, 제자리에서 보는 책이 아닌 직접 활동하며 학습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Running & Learning Book은 박물관 또는 가정에서 휴식을 즐기면서도 한국복식의 형태를 익히고 채색하며 설명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컬러링북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한국복식에 담긴 색상에 대한 의미를 학습하고 직접 색을 배합하여 자신만의 한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컬러링북은 채색이 되지 않은 외곽선만 그려진 그림책이나 스케치북에 크레용, 색연필, 마커펜 등을 사용한 미술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컬러링북은 컬러링페이지 라고도 하는데, 책이나 카드 등으로 제작되었다. 컬러링북에 대한 역사는 19세기 미국에서 등장했으며, 1880년대 McLoughlin Brothers와 Kate Greenaway가 처음으로 만든 ‘색칠하기 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예술적 능력에 관계없이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고, ‘예술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발전했다. 이는 전통적인 교육방법보다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교육의 통로를 제공하였다. 컬러링을 통한 밝은 색상과 컨셉의 시각적인 표현은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실제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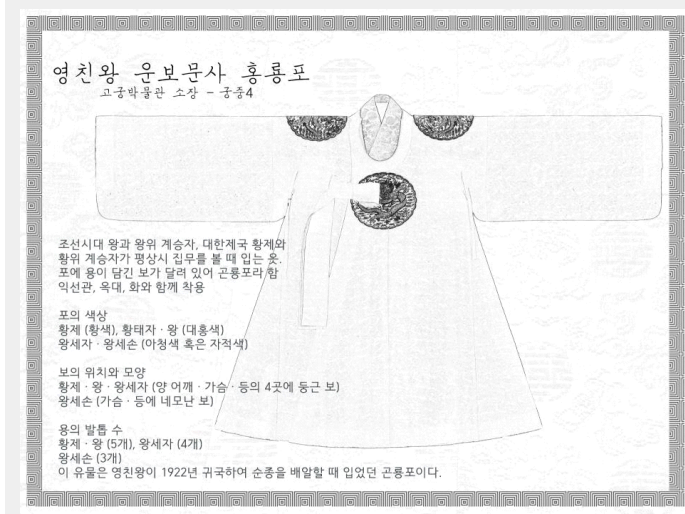
한국의 유물과 한복을 소재로 한 컬러링북이 제작된 사례는 『가회민화박물관 어린이민화교재』<sup>40)</sup>, 『한국민화컬러링북』<sup>41)</sup>가 있으며, 한복을 소재로 한 컬러링북은 『물들이다 : 한복 동화 컬러링북』<sup>42)</sup>, 『패션 컬러링북 한복』<sup>43)</sup>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 운영방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봉사자와 학습자의 직접적인 활동은 박물관 및 학교방문, 진로체험활동 등과 함께 실행가능하며, 박물관을 돌며 복식 관련 유물을 찾아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고 복식에 대한 설명

과 색상의 의미 등을 교육 하고 이 중 가장 맘에 드는 컬러링 엽서 등을 채색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한 봉사자가 제작한 한 권의 컬러링북을 이용하여 개별 학습자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e-museum, 문화재청 유물 검색 등을 활용하여 어느 장소와 상황에서도 가능한 자체적 활동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다방면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7>과 같이 설계하였으며, 그 중 ‘한복 입고 나들이’의 주제로 제작한 컬러링북에 대한 예시는 <그림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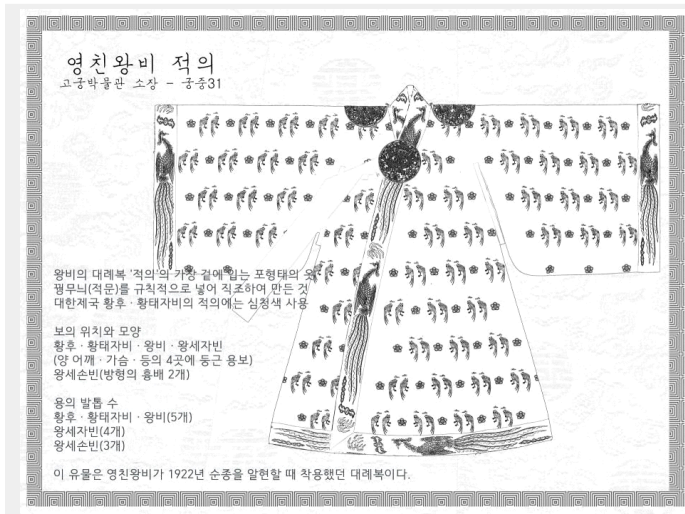
<표 17> Running & Learning Book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내용  |
|------|---|
| 대상   | · 전 연령층   |
| 목표   | · 한국복식에 대한 이해<br>· 한국복식에 적용된 색상에 대한 이해  |
| 내용   | · 봉사자는 이달의 유물, 복식유물 찾기, 내가 공주·왕자라면? 등의 주제를 담아 컬러링북을 제작하고 학습자가 활동 할 수 있도록 함<br><br>· 주제예시 : ‘한복입고 나들이’<br>“옛날 우리 나라의 왕과 왕비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br>“어떤 날에, 어떤 의미로 입었던 옷일까?”<br><br>1. 영친왕 운보문사 홍룡포<br>2. 영친왕비 적의<br>3. 숙고사 오방장 두루마기<br>4. 다양한 문양을 색칠해보자<br>5. 화려한 용의 발톱을 색칠해보자 |
| 기대효과 | · 박물관 유물의 활용과 홍보 효과<br>· 한국복식의 구체적인 면을 살피고, 상징성 이해에 도움  |



### 영친왕 운보문사 홍룡포

- 조선시대~대한제국 국왕의 집무복
- 용이 그려진 보가 있어 곤룡포라 하며, 영친왕의 홍룡포에는 다섯 개의 발톱이 있는 오조룡 보가 달려있음



### 영친왕비 적의

- 왕비의 대례복
- 꿩과 이화문이 직조됨
- 보의 위치와 모양, 용의 발톱 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



### 숙고사 오방장 두루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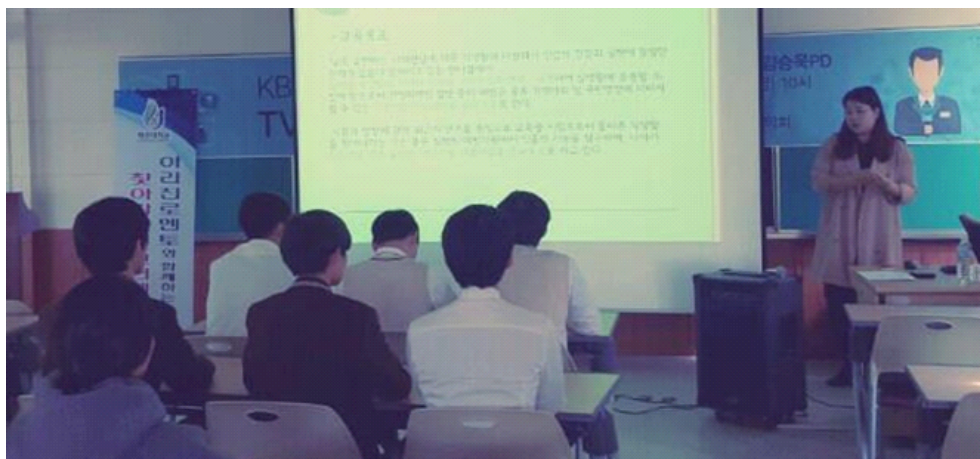
- 아들이 착용한 두루마기, 오방색을 사용한 옷
- 명절 및 돌날 착용함

<그림 29> Running & Learning Book - 한복입고 나들이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제작

#### 4) 교과서 속 우리옷

‘교과서 속 우리옷’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연계유형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다. 중등 교과과정 중 한복을 소재로 하는 단원이 있는 기술·가정 교과목을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며, 한국복식관련 내용 부분을 중심으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이후 봉사자와 학습자 간의 한국복식관련 진로 체험 멘토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최근 중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취업·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업 이외에도 진로와 학습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중등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개인의 희망진로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및 교과연계 프로그램들은 대학에서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제주대학교에서는 <그림 30>의 ‘아라진로멘토’ 프로그램과 같이 중·고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기회인 ‘진로멘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연계 및 진로탐색을 주제로 하는 자유학기제 활동인 ‘자청비’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대학생 봉사자들과 청소년들 간의 진로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0> 청소년 대상 진로멘토링  
-연구자촬영(2015)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교과연계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들은 단발적 행사로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복식 관련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인 중학생들에게 교과과정 내의 한국복식 관련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진로탐색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멘토링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한복의 착용법, 장점, 옷차림 예절에 중점을 두고 교과과정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한복의 기본형 알아보기’에서는 한국복식유물들을 통해 한복의 기본형과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학습하며, 이를 활용하여 봉사자가 제작한 <그림 31>과 같은 ‘종이 한복 입히기’를 통해 한복의 착용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한복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기’에서는 유물들과 현대의 다양한 한복 등을 통해 살펴본 한복의 장점과 우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키워드 카드를 선택 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세 번째, ‘한복 바르게 입기와 생활예절’에서는 실제적으로 한복을 착용하고 복식 및 상황에 따른 예절을 익히며 스스로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한국복식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복식의 우수성과 미적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어지는 봉사자와의 멘토-멘티 관계를 통한 한국복식 관련 지식 교류와 간접적인 진로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 추후 한국복식 및 관련 분야 진로 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교과서 속 우리옷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내용은 <표 18>와 같다.

<표 18> 교과서 속 우리옷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내용

|      | 내용  |                |           |                 |     |                 |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 및 청소년</li> </ul>  |                |           |                 |     |                 |    |
| 교육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을 통해 한국복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도모</li> <li>· 중학생의 한복 관련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li> </ul>  |                |           |                 |     |                 |    |
| 학습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복식의 원류와 형태에 대한 이해</li> <li>· 전통예절에 부합하는 한복의 착장법 학습</li> </ul>  |                |           |                 |     |                 |    |
| 교육내용 | <p style="text-align: center;"><b>중등 기술·가정①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내용 설계44)</b></p> <p><b>(1) 한복의 기본형 알아보기</b><br/> <b>한복의 기본형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기 &lt;그림 31&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의 유물 및 재현품등을 통한 기본형 파악</li> <li>· 전통 방식의 한복을 직접 착용 체험</li> <li>· ‘종이한복 입히기’ 활동으로 기본형 및 착장법의 쉬운 이해 도모</li> </ul> <p><b>(2) 한복의 우수성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기</b><br/> <b>한복의 우수성에 대하여 팀별로 이야기 해 보기</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6.6%; 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환경</td> <td style="width: 16.6%; 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색상의<br/>조화</td> <td style="width: 16.6%; 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선의<br/>아름<br/>다움</td> <td style="width: 16.6%; 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실용성</td> <td style="width: 16.6%; 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활동성<br/>과<br/>기능성</td> <td style="width: 16.6%; height: 100px; vertical-align: middle;">건강</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방면에서의 장점을 갖고 한복에 대하여 팀별 토론하고, 한복의 장점에 대한 키워드 카드를 선택하여 유물을 보며 떠오르는 장점들을 이야기 함</li> </ul> <p><b>(3) 한복 바르게 입기와 생활예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기, 한복 바르게 입기를 통해 한복 착용에 대하여 학습하고 한복을 입는 순서와 그 구성에 대해 체험 학습함<br/>         → 전통예절 학습 : 인사, 혼례, 복장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li> </ul> | 환경             | 색상의<br>조화 | 선의<br>아름<br>다움  | 실용성 | 활동성<br>과<br>기능성 | 건강 |
| 환경   | 색상의<br>조화   | 선의<br>아름<br>다움 | 실용성       | 활동성<br>과<br>기능성 | 건강  |                 |    |



|      |   |
|------|---|
|      | <p><b>평가 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의 착장순서를 알고 있는가?</li> <li>• 상황에 맞는 복장예절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li> <li>• 한국복식의 기본 형태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li> </ul> <p><b>(4) 한국복식 진로 멘토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복식유물 학습을 위한 박물관 및 전시 탐방은 앞선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하며, 디자인, 만들기, 업체 및 학과 방문 등</li> <li>• 한국복식관련 박물관 및 전시 탐방</li> <li>• 한복 만들기 - 아동 사이즈의 저고리와 치마 제작 (15주 과정)</li> <li>• 한복 디자인 - 전통한복 및 신한복 활용 디자인 (4주 과정)</li> <li>• 한국복식 관련 사업체 및 전공학과 방문</li> </ul>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복식에 대한 체험적 교육을 통한 한복의 이해</li> <li>• 한복의 우수성과 복식유물을 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li> <li>• 한국복식 관련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관심을 확장</li> </ul>  |



<그림 31> 교과서 속 우리옷 - 종이한복 입히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제작



## 2. 홍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복의 ‘홍보’ 중심 프로그램이다. 한국복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한복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한국복식의 기초적 교육·체험이 전술한 프로그램들에서 진행되었다면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국복식유물과 지역별 특색 있는 복식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며 그를 통한 대중적 홍보 및 교육 활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홍보 프로그램의 참여 봉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 받은 자, 한국문화·한국복식·패션 등 관련 동아리 구성원 등이 주를 이루게 되고, 한국복식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각 지역사회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봉사자들과 학습자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지어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습자가 특정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며,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통합 혹은 개별 프로그램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봉사자들은 ‘한복 팔도 유랑’ 이라는 이름으로 한복을 입고 활동하는 여행자 및 홍보단을 구성하여 활동 하며, ‘한복 리포터 매거진’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 리포터가 되어 한국복식의 다양한 관점과 이슈를 담은 매거진을 제작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가 설계한 두 가지의 한복홍보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홍보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
| 한복 팔도 유랑   | · 국내 한복여행가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한국복식을 홍보  |
| 한복 리포터 매거진 | · 복식유물 및 트렌드 관련 컨텐츠 제작하여 한국복식을 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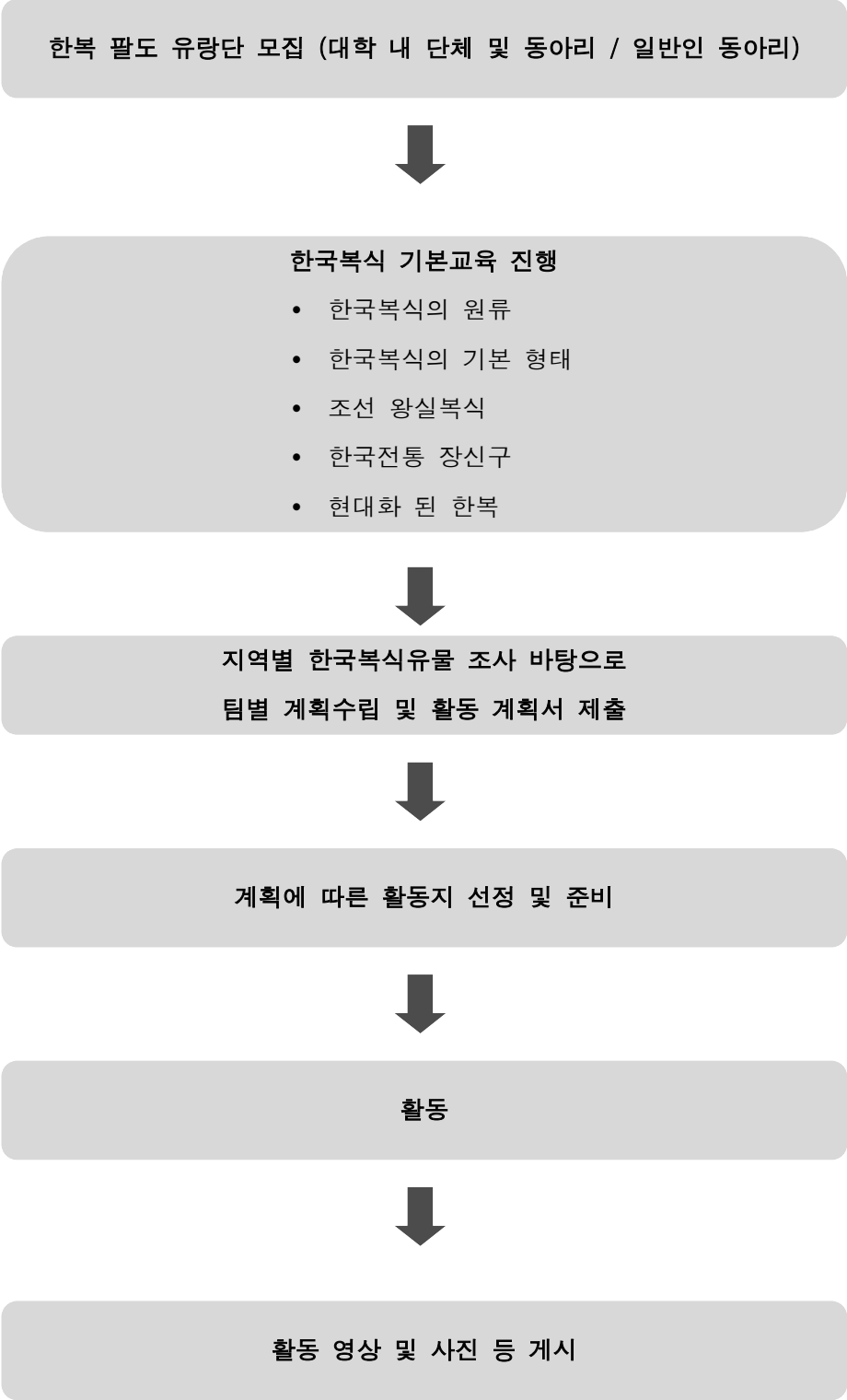
## 1) 한복 팔도 유랑

본 프로그램은 지역별 한국복식유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복 팔도 유랑’이라는 명칭으로 설계하였다. 국내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복여행가 및 홍보단 집단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한국복식유물 및 한복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참여 봉사자들은 관련 학과나 교육을 이수한 학생 혹은 일반인으로 팀 별 주제를 정하여 지역 특색 및 팀의 색깔에 맞는 주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광범위한 한국복식의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복식에 관심이 많은 각지의 학생 및 일반인들이 팀을 이루어 집단 활동이 용이하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복식관련 여행 및 홍보 활동은 그 사례가 다양하다. 2000년대 이후 ‘한복 놀이단’과 같이 한복을 입고 모임을 진행하는 활동이 성행하였고, 한복진흥센터 주체로 진행되는 ‘한복 입는 날’, ‘한복주간’ 등을 통한 한국복식 홍보 및 착용 독려 행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복여행가’ 등의 모임집단을 중심으로 한복을 착용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적이고 다양화된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복여행가 ‘권미루’가 있다. 그는 2017년 『한복, 여행하다』라는 책을 발간, 한복을 입고 세계각지를 여행하는 모습을 담아 ‘불편한 한복’이라는 인식을 지우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홍보 및 여행단과의 차별점은 각 지역의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주제를 삼아 활동한다는 점이다. 참여 봉사자들은 지역별 박물관의 유물 및 관련 복식유물들을 활용한 주제로 활동을 하며,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봉사자의 역할을 맡는 대상들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복식 및 지역의 복식을 착용하며 팀별 계획을 수립·수행하게 된다. 활동의 결과물은 영상 혹은 사진, 기록물로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영상매체, SNS 등을 통한 배포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연구자가 설계한 ‘한복 팔도 유랑’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는 <그림32>와 같다.



<그림 32> 한복 팔도 유랑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표 20>의 한복 팔도 유랑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는 제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한 계획표이다. 봉사자들은 한국복식과 제주복식에 대한 관심이 뛰어난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소속 학생들이며, 한국복식 및 제주전통복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학내 설강되어 있는 ‘한국복식사 I’, ‘한국의복구성 I’, 등의 한국복식 관련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들은 제주의 축제에 참가하여 퍼레이드 및 플리마켓 등에 참여하고 제주 전통복식 홍보하게 된다. 이들은 제주의 고유복식인 목자복과 해녀복 등에 대한 정보전달과 홍보,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의 옷을 제작하여 착용한다. 이들은 제주의 전통복식의 역사와 이미지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방문객들에게 배포 하고, 에코백이나 티코스터, 그 외의 작은 소품 등을 응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활동비 및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표 20> 한복 팔도 유랑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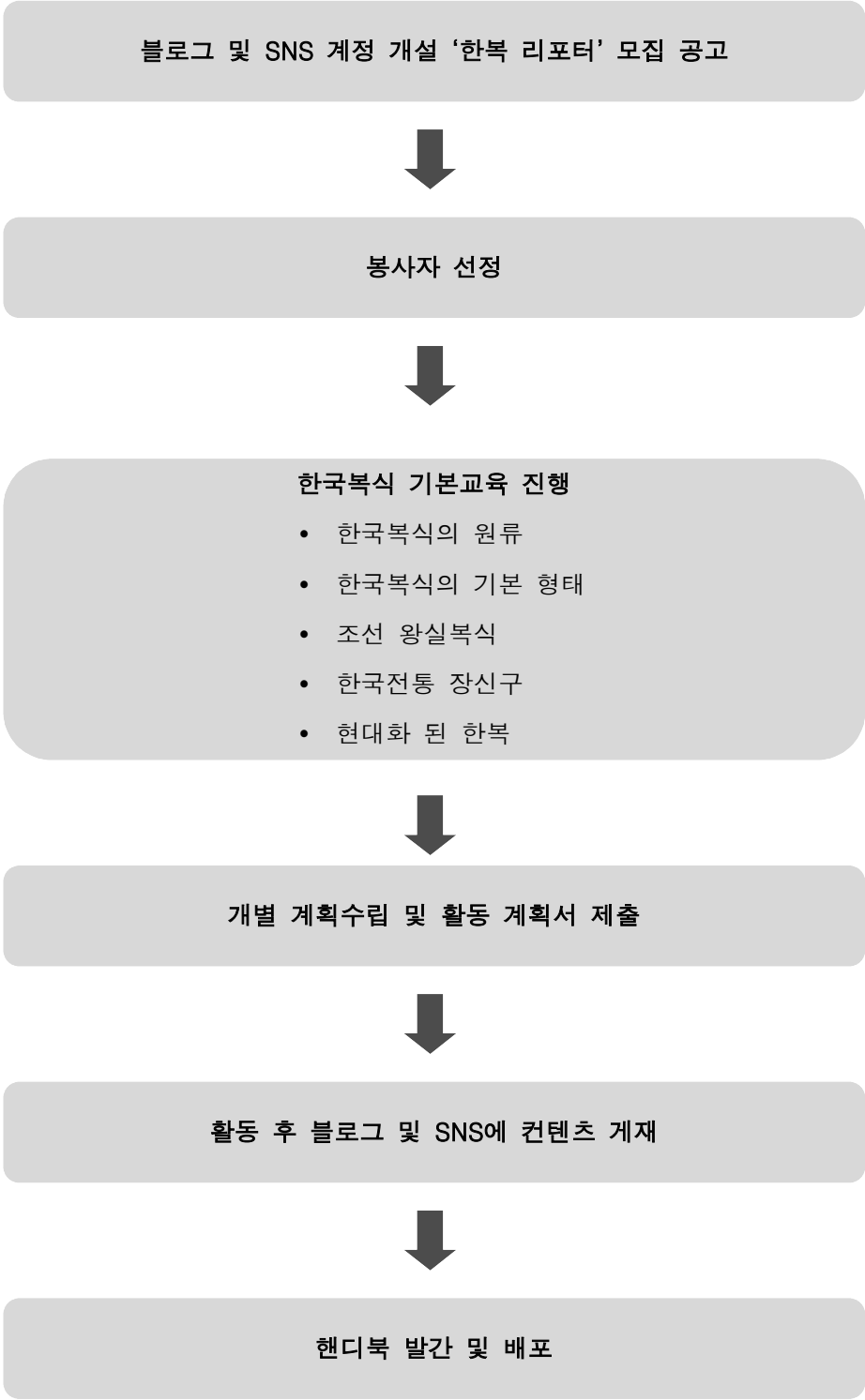
|        | 내용   |
|--------|--|
| 팀명/소속  | · 한복입고 유랑나랑 /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
| 교육진행정도 | · 대학 내 ‘한국복식사 I’, ‘한국복식사 II’, ‘한국의복구성 I’, ‘한국의복구성 II’, ‘전통규방소품제작’ 등 개설 교과목 이수  |
| 주제     | · 제주의 축제에 한복과 제주의 전통복식을 입고 퍼레이드  |
| 활동일정   | (1) 2018. 12. 제주윈터페스티벌<br>(2) 2019. 1. 성산일출제<br>(3) 2019. 2. 탐라 입춘굿놀이<br>(4) 2019. 3. 제주들불축제   |
| 활동내용   | · 한복과 제주의 전통복식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를 담은 리플렛 및 판매용 에코백 디자인 : 목자복, 해녀복, 일상복<br>· 퍼레이드(사전 허가 필요) 및 작은 공연, 함께 촬영 등<br>· 플리마켓에 참여하여 에코백 판매<br>(수익금은 활동금 및 지역사회 기부금으로 사용) |
| 기대효과   | · 제주복식 입고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제주 복식 홍보<br>· 자료를 배포하여 제주복식의 역사와 전통 홍보  |

## 2) 한복 리포터 매거진

한복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거진을 통한 홍보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복관련 매거진 혹은 기관지의 사례로는 한복진흥센터의 ‘입고 싶은 우리옷 한복’이 2015년을 기점으로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 파라다이스그룹의 ‘한웨이’에서도 한복을 주제로 한 매거진이 2018년 1회 발간된 바 있다.

한국복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봉사자가 직접 눈높이에 맞는 한복 매거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봉사자가 한국복식과 그 역사를 담은 한국복식 유물을 알리는 한명의 리포터가 되어 짧은 기사와 이야기, 사진과 본인들의 활동을 담은 일을 말한다. 대중들이 많이 접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영상매체 사이트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콘텐츠로 제작하고 배포하며, 이를 모아 하나의 매거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핸드북 형태로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매거진의 경우 젊은 참여봉사자들의 시선에서 한복을 바라보게 되어 한국복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은 물론 한복에 입문하는 어린 세대들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거진으로 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간된 매거진들은 독자 서평과 다양한 의견들과 맞닿아 한복에 대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참여봉사자의 고찰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서비스러닝의 목표가 봉사자의 성찰과 지역사회의 기여 및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간접적 경험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봉사자들의 구체적인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자가 설계한 ‘한복 리포터 매거진’에 대한 프로세스는 <그림 33>과 같으며, 한복 리포터 매거진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은 <표 21>과 같이 진행 할 수 있다.



<그림 33> 한복 리포터 매거진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그림 34> 한복입고 제주 여행하기

-연구자촬영(2018)

**<2018 탐라문화제에서 생활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는 로컬밴드 오버플로우>**

최근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한복 여행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복여행 트렌드는 제주까지 이어져왔는데, 제주에도 곳곳 생활한복을 대여하는 상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관심 또한 매우 뜨겁다.

낭만의 섬이자 자유로운 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손 쉽게 한복을 대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제주에는 ‘아인제한복’, ‘한복입는 선홍집’, ‘아씨한복’, ‘세화하루’ 등의 생활한복 업체가 생겨 도내에서 한복을 대여하고 여행을 즐긴 뒤 편리하게 반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플리마켓 ‘벨롱장’, ‘골목마켓’, ‘청춘마켓’ 등에서도 생활한복을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여행지에서도 한복을 접하는 것이 예삿일은 아니다.

이러한 한복들은 ‘독특하다’, ‘개성있다’, ‘제주의 감성과 어울린다’ 등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어 앞으로 제주에서의 한복 여행자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보자!

키워드 : #제주, #제주여행 #한복, #한복여행, #한복대여



### 3. 사회공헌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한국복식유물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중 ‘봉사’의 관점에 맞춰 설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봉사자들은 한국복식유물 활용하여 재능기부와 학습자들의 자활도움, 기부와 환경보호 등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된다.

재능기부란 개인의 재능을 개인의 설계 이외에도 활용하여 사회와 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환원하는 형태의 기부를 의미한다. 전술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적 측면의 ‘봉사-학습’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유사한 의미로 여겨질 수 있으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봉사적 측면을 강조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봉사-학습 과정에서도 봉사의 비중이 큰 본 프로그램은 봉사자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학습자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움으로써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얻게 된다. 오래된 한복을 리사이클링 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빈곤에 대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설계하였다. 복식유물을 활용하여 봉사자들이 직접 학습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학습자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인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와, 봉사자와 학습자가 오래된 한복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다시 입을 수 있는 한복으로 제작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활용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의 형태의 프로그램인 ‘우리웃 다시 입기’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사회공헌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
|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 ·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학습자의 자활도움       |
| 우리웃 다시 입기   | · 오래된 한복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제품 만들어 기부 |

## 1)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학습자의 자활도움 프로그램으로 봉사자가 한국복식유물 중 아동복식 및 매듭 등의 제작과정을 학습자에게 교육하고, 함께 제작하여 기부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봉사자는 대학 및 관련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여 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등 자활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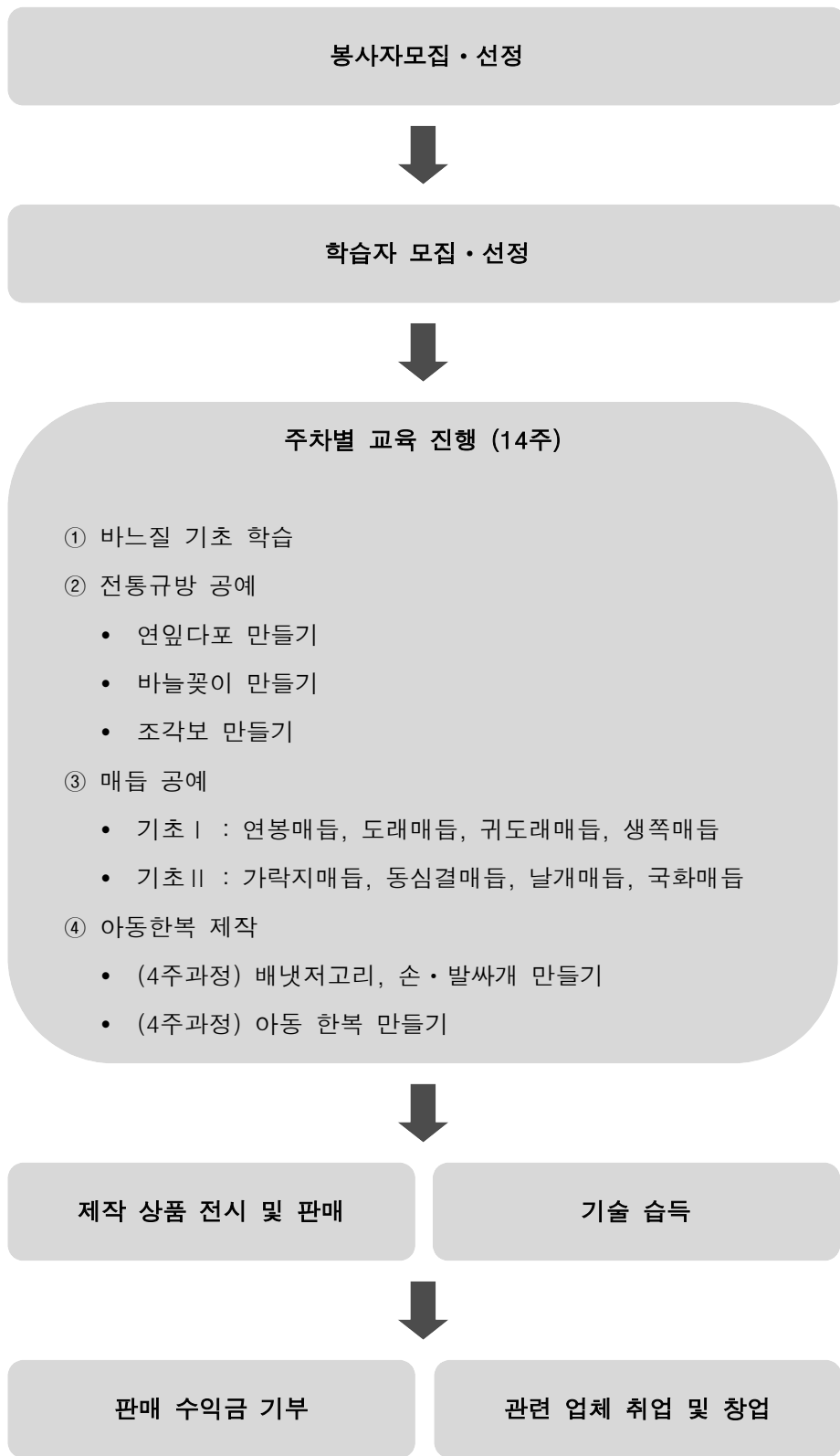
<그림 35>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https://www.sc.or.kr/newborn/>



<그림 36> 사랑발 배넛저고리 참여기부 캠페인  
-<http://www.withgo.or.kr/campaign>

기존의 사례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 캠페인-뜨개모자 제작 <그림 35><sup>45)</sup>, 사랑밭의 미혼모를 위한 배냇저고리 제작<그림 36><sup>46)</sup> 등이 있다. 후원자들이 뜨개모자와 배냇저고리를 제작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찾아가는 왕실태교’ 프로그램에서 미혼모 및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복식유물 중 신생아 및 아동복에 해당하는 유물로 설계하였으며, 이는 대학에서 한국의복구성 및 전통규방공예 소품제작 수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봉사자들은 한국복식유물과 관련한 다양한 침선기법, 유물을 참고한 규방공예의 기본 바느질법과 제작법 등을 교육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작된 제품의 판매 및 기부 형태로 진행하거나, 기술을 전수 받은 학습자들은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방법으로 전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그림 37>과 같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설계는 <그림 38>과 같다.



<그림 37>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 전통규방 공예



- 조각보 활용 작품
  - ⇒ 바늘꽃이 만들기
  - ⇒ 조각보 만들기

## 매듭공예



생쪽매듭 활용 악세서리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패션문화상품제작

- 생쪽매듭 제작  
악세서리 제작  
ex. 목걸이, 귀걸이

## 아동한복



저고리와 사폭바지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한국의복구성

- 저고리 · 사폭바지
  - ⇒ 아동 3~5세  
사이즈로 제작

<그림 38>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 주차별 교육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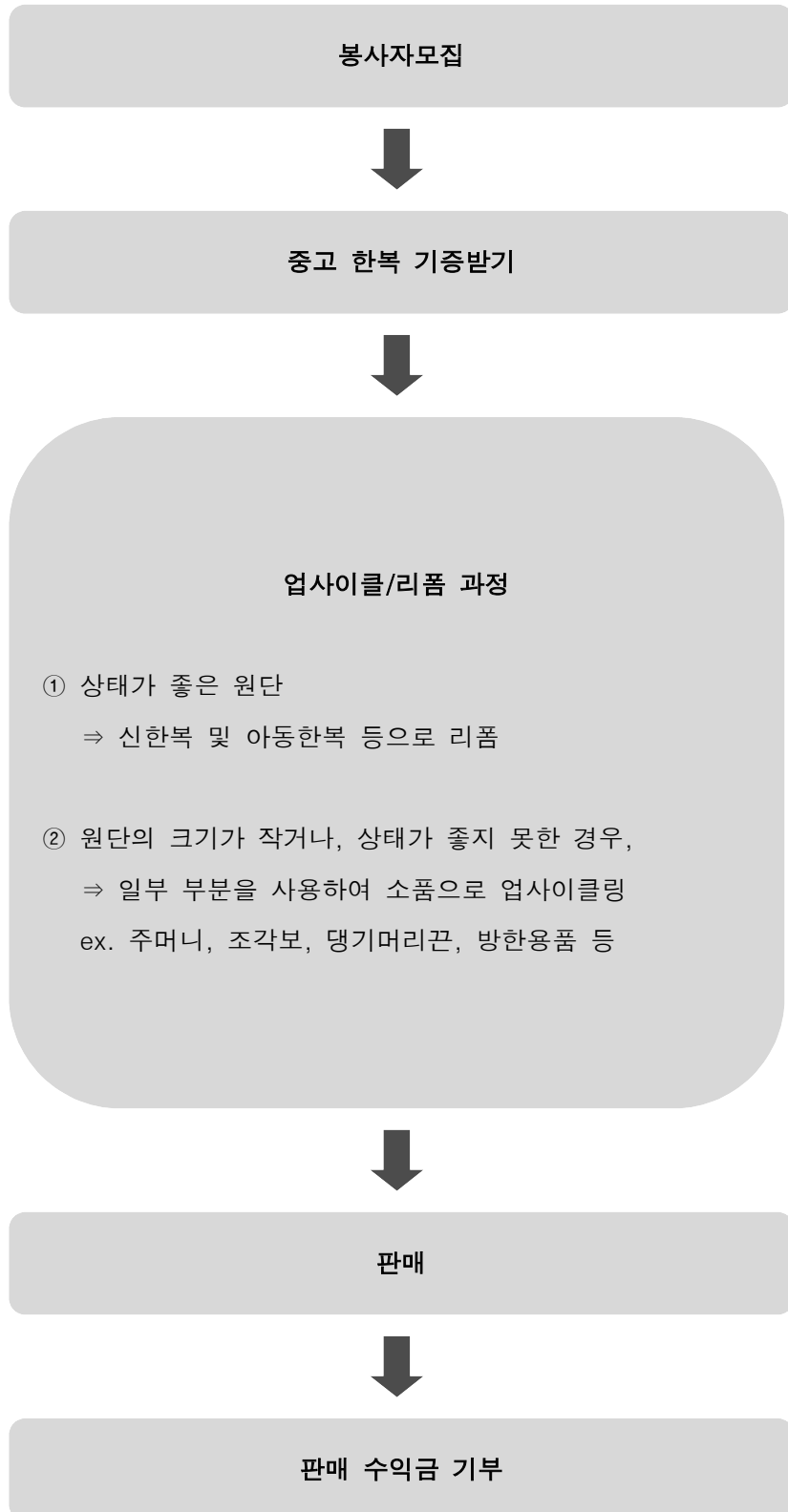
## 2) 우리옷 다시 입기

오래된 한복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제작하고 판매수익금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보호적 측면과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적인 가치를 담았다. ‘우리옷 다시 입기’라는 명칭은 착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한복을 리폼(reform)하여 다시 입을 수 있는 한복으로 제작하거나,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기부하는 방식이다. 한복을 재활용하여 새로이 개발하는 사례로는 ‘2016 서울새활용展’에서의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와 아릅지가가 콜라보레이션 하여 진행된 한복 업사이클링 패션쇼가 있다. 한복의 원단과 다양한 이미지를 의상과 악세서리로 새롭게 활용하여 제작 및 전시하여 한복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가 설계한 우리옷 다시 입기 프로그램은 미래를 향한 한국복식유물 활용방안으로 제시하는 한복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한복은 일반인들이나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옷장 속에 숨어 있는 한복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마치 한국복식유물을 발굴하는 것과 같이 잠자고 있는 한복을 발굴해 내어 그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되찾게 된다. 과거에 제작되었던 오래된 한복들은 많은 수가 고급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재에 들어 착용하기에 관리가 되지 않았거나 오래 되어 입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한복을 봉사자가 업사이클링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적 프로그램은 한복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복식구성 등의 과정을 이수한 봉사자나, 앞선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도 봉사자로 참여 가능하며, 학습자는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한다. 봉사자들은 한복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한복이나 제품 등을 제작하는 점에서 아이디어 상품이나 창업 아이템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제품들의 판매 수익금을 통한 지역발전의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동 프로세스는 <그림 39>와 같으며, 한복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하여 <그림 40>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9> 우리옷 다시 입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프로세스 설계





- 생활한복 및 조각 보 활용
- ⇒ 땀기 머리끈 제작



- 치마와 저고릿감 활용
- ⇒ 자수와 레이스감, 큐빅 등을 더하여 명함케이스 제작



- 성인 치맛감 활용
- ⇒ 자수를 넣어 쿠션으로 제작

<그림 40> 우리옷 다시 입기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 IV. 결론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복식은 우리의 삶에서 존재해왔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복에 대한 관심과 착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복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복식박물관들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국내·외 복식박물관 현황조사에 따른 분석내용과 연구자가 설계한 한국복식유물 활용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 한국복식유물을 소장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세 곳 박물관의 현황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 곳 모두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전래유물 및 출토유물 등 한국복식유물의 수가 상당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출토복식을 비롯한 한국복식유물을 바탕으로 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식관련 학술연구와 세미나가 매년 진행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 유물을 중심으로 민속복식 등 한국인의 생활상을 담은 복식유물들을 전시하고,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운영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경우 왕실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왕실 복식에 대한 전시와 연구, 대중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외의 복식유물을 소장한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고베패션박물관의 현황과 교육·체험·행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세 곳 모두 전시대·전국가의 복식 및 예술품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의 박물관이다. 시대별, 종류별, 나라별 다양한 복식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복식유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는 다양한 나라의 미술품을 비롯한 유물들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멧갈라(Met Gala)’를 개최하

여 복식유물 및 디자이너, 브랜드 등 패션 전시 및 패션쇼 등의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은 오랜 기간 수집한 수많은 유물들을 중심으로 복식 및 디자인 관련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디자이너 전시 및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었다. 고베패션미술관은 일본복식 외에도 서양복식의 연대별 전시 및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패션 관련 세미나를 매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내·외 복식박물관들의 현황조사 및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복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이 발달한 국외에 비해 국내에는 복식전문 박물관이 몇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술한 국외의 패션 박물관 세 곳 이외에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복식전문 박물관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으나, 국내는 복식을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은 드물고 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복식박물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복식유물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시연계교육 및 복식착용, 소품제작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박물관에서의 한국복식유물의 활용도가 비교적 낮아 한국복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국외에 비하여 국내의 복식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현존하는 박물관에서의 양질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박물관 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식 관련, 그 중 한국복식 프로그램들은 한복을 보거나 입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국내·외 복식박물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네 가지 유형 즉, 전시연계유형, 체험유형, 세미나 및 강연유형, 교과연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어지는 III장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설계에서 활용하였다. 이상에서의 문헌 및 실증조사를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했다.

넷째,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All about Hanbok’, ‘Running & Learning Book’, ‘교과서 속 우리옷’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II장에서 도출해 낸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네 가지 유형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전시연계유형인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전시를 관람

하며 복식유물인 공주당의 탈출사건 스토리의 문제해결을 통해 한국복식의 형태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All about Hanbok’ 프로그램은 세미나 및 강연유형과 체험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복식유물을 통한 한복의 기본형과 음양오행 사상, 오방색을 적용한 한국복식의 사례를 학습하고, 직접적인 한국복식의 착용과 제작방법을 체험하여 한국복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함양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Running & Learning Book’은 체험활동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뛰다’라는 의미의 ‘running’과, ‘배우다’라는 의미의 ‘learning’을 담아 제작한 컬러링북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을 직접 관람하거나 e-museum 등을 통해 한국복식유물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컬러링을 하는 것으로, 박물관을 비롯한 어디서든 한국복식유물을 관찰하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교과서 속 우리옷’ 프로그램은 교과연계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중등 기술·가정 교과 중 한국복식과 관련한 학습 내용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학습자는 한국복식유물들을 참고하여 교과서 속 한국복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학습을 하게 되고, 한국복식 관련 진로의 선배인 봉사자들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여 진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섯째, 홍보 프로그램은 ‘한복 팔도 유랑’과 ‘한복 리포터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계 하였다. ‘한복 팔도 유랑’은 전국의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한국복식 홍보단의 개념으로 이들은 각 지역의 한국복식유물에 대한 조사와 지역별 독자적으로 발달한 복식유물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복식을 홍보하는 역할로 활동하게 된다. ‘한복 리포터 매거진’은 한국복식과 관련한 이슈들을 기사화 하여 그를 하나의 콘텐츠로 제작 및 SNS나 블로그 등의 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것이다. 내용은 한국복식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며 그 중 한국복식유물, 신한복, 한복시장의 동태, 우리주변의 다양한 한국복식과 관련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 게시된 콘텐츠 들은 종합한 매거진으로 발행·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국복식 관련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섯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학습자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인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와 오래된 한복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환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인 ‘우리옷 다시 입기’로 설계



하였다. ‘손에 손으로 이어가기’는 봉사자가 생계곤란 및 자활이 필요한 학습자들에게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이론적 교육과 실제 활용 가능한 실기교육을 하여 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로 발생한 제품들은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학습자들이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우리옷 다시 입기’는 오래된 한복을 기증 받아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한복을 만들거나 소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기부하는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재활용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곱째, 한국복식은 현재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방면으로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복이 미래를 향해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한국복식의 무분별한 변화와 올바르지 못한 인식의 만연, 기초지식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논쟁과 그릇된 정보들은 본 연구와 같은 한국복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설계를 하였고, 어느 곳에서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8가지의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복식의 인식 개선과 지식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복식박물관의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박물관의 프로그램 사례 조사에 비해, 국외의 프로그램 사례조사가 다소 부족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현황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서비스러닝이라는 교수학습법을 도입한 본 연구는 봉사자와 학습자 참여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나, 봉사자의 성찰과 학습자의 학습효과 등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을 통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자가 설계한 프로그램들은 한국복식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한국복식유물을 활용하여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한국복식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활용도가 높고 대중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목록

### < 국내·외 문헌 >

- Barbara Jacoby(2008), *대학교육과 봉사학습 : 이론적 관점과 실제*, 조용하, 학지사, 27-46.
- 조용하(2002), *대학봉사학습의 동향과 과제*,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George Hein(2015), *박물관교육론*, 안금희 외 3인, 학지사
- 이승희(2008), *해외미술관·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 자료집*, 국립현대미술관
- 오인경(200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 학지사
- 김지호(2012), *미래의 미술관 : 국내외 미술관 교육의 역사, 현황, 대안*, 한국학술정보
- 윤병화(2016), *학예사를 위한 박물관학*, 예문사. 3-7.
- 제주대학교박물관(2010), *제주대학교 박물관 도록 VI 제주의 복식*
- 김인규 외 9인(2016), *중학교 미술*, 미진사, 168-172, 243-247.
- 이춘식 외 10인(2017). *중학교 기술·가정1*, 천재교육, 90-95.
- 국립중앙박물관(2005), *즐거운 역사체험 어린이박물관*
- 박현숙(2015), *신통방통한복, 좋은책어린이*
- 가회민화박물관 출판부(2006), *어린이민화교재*
- 정민자(2015), *한국민화컬러링북, 힐링아트*
- 우나영(2017), *물들이다 흑요석의 한복 동화 컬러링북*, 출판사클
- 김혜순,정민경(2015), *패션 컬러링북 한복*, RHK
- 서보현 외 3인(2001), *철부지 아가씨의 고운 한복*, 한국차일드아카데미
- 최혜영 외 3인(2001), *겨레의 옷, 한복*, (주)한국슈바이처
- 김홍신 외 2인(2016), *우리옷 고운 옷 한복이 좋아요*, 노란우산
- 국립중앙박물관(2017),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 단국대학교출판부(2016), *석주선박사의 우리옷 나라*
- 국립대구박물관(2002), *한국 전통복식 2천년*

국립중앙박물관(2011), *국립중앙박물관 100선*  
 국립중앙박물관(2018), *포이 사랑한 보물*  
 류희경 외 6인(2011), *우리옷이천년*, 미술문화  
 김문자(2015), *한국복식사개론*, 교문사  
 안명숙 외 2인(2010), *우리옷 만들기*, 교문사  
 최정(2017), *한복을 입은 역사와 미디어*, 경춘사  
 장옥경(2017), *엄마가 꿈꾸는 아기 옷*, 시대인  
 김은영(2013), *매듭 만들기*, 미진사  
 손경숙(2013), *자수 배우기*, 미진사  
 권미루(2017), *한복, 여행하다*, 도서출판 푸른향기  
 이재만(2005), *한국의 색*, 일진사

#### < 학위논문 및 학술지 >

김민정(2012),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역사학습, *한국역사교육학회*.  
 구지연(2006), 전통복식유물의 전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성하(2016), 박물관에서의 역사교육 : 2010년 이후 주요박물관의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와박물관연구 10*.  
 안인희(2009), 복식전시물을 화로용한 박물관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연구-국립민속박물관 고구려 전시물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1)*, 136-148.  
 김윤미(2010), 박물관 전통의생활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진(2014), 가야 갑주를 활용한 박물관 어린이 체험용 갑주 디자인 개발, *패션비즈니스 18(5)*, 56-68.  
 안인희·송지영(2010), 학교연계교육을 위한 웹기반 복식박물관 구축, *한국디자인*



인문화학회지 16(1), 189-199.

오일환(2010), 박물관의 서양고지도를 이용한 전시학습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전시컨텐츠의 탐구와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3), 310-320.

홍나영 외4인(2008), 복식사 분야의 학예사 제도 현황과 교육방안, *한국복식학회지* 58(5), 1-12.

이문정(2015), 제주도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희·최현숙(2012), 한국 패션 박물관 건립을 위한 패션 박물관의 기능과 현황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2(5), 156-170.

## 미주목록

- 1) 구지연(2006), 전통복식유물의 전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전통복식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윤미(2010), 박물관 전통의생활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윤병화(2016), 박물관학, 예문사, 3-7.
- 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웹사이트[2018. 6. 20 검색], <http://museum.dankook.ac.kr/>
- 5) 단국대학교출판부(2016), 석주선박사의 우리웃 나라, 34
- 6) Ibid.
- 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웹사이트[2018. 6. 20 검색], <http://museum.dankook.ac.kr/>
- 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공문요청[2018. 11. 5]
- 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웹사이트[2018. 6. 20 검색], <http://museum.dankook.ac.kr/>
- 10) ① 국립민속박물관(2018), 민속연보2017. ② 국립민속박물관 웹사이트 [2018. 6. 20. 검색], [www.nfm.go.kr](http://www.nfm.go.kr)
- 11) 요선첩리[2018.10.10. 검색], [http://www.nfm.go.kr/user/extra/home/102/totalKeyword/coll\\_search/jsp/LayOutPage.do](http://www.nfm.go.kr/user/extra/home/102/totalKeyword/coll_search/jsp/LayOutPage.do)
- 12) 조복[2018.10.10. 검색], [http://www.nfm.go.kr/user/extra/home/102/totalKeyword/coll\\_search/jsp/LayOutPage.do](http://www.nfm.go.kr/user/extra/home/102/totalKeyword/coll_search/jsp/LayOutPage.do)
- 13) ① 국립민속박물관(2015), 민속연보2014. ② 국립민속박물관(2016), 민속연보2015. ③ 국립민속박물관(2017), 민속연보2016. ④ 국립민속박물관(2018), 민속연보2017. ⑤ 국립민속박물관 웹사이트 [2018. 6. 20. 검색],

www.nfm.go.kr

- 14) 국립민속박물관(2018), 민속연보2017, 31.
- 15) ① 국립민속박물관(2015), 민속연보2014, 17. ② 국립민속박물관(2016), 민속연보2015, 17. ③ 국립민속박물관(2017), 민속연보2016, 17. ④ 국립민속박물관(2018), 민속연보2017, 18. ⑤ 국립민속박물관 웹사이트 [2018. 6. 20. 검색],  
www.nfm.go.kr
- 16) 국립고궁박물관(2016), 국립고궁박물관연보 제5호, 107.
- 17) 국립고궁박물관 웹사이트[2018. 7. 24. 검색], <http://www.gogung.go.kr>
- 18) 국립고궁박물관(2016), 국립고궁박물관연보 제5호, 144.
- 19) Ibid, 151.
- 20) ① 국립고궁박물관(2016), 국립고궁박물관연보 제5호, 134-. ② 국립고궁박물관 웹사이트[2018. 7. 24. 검색], <http://www.gogung.go.kr>
- 21)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2018.10.8 검색],  
<https://www.metmuseum.org/visit/met-fifth-avenue>
- 22)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오브 아트[2018. 10. 8 검색],  
<https://www.metmuseum.org/press/general-information>
- 23) Heavenly bodies[2018. 10. 10 검색]  
<https://www.metmuseum.org/exhibitions/listings/2018/heavenly-bodies>
- 24) Ibid.
- 25) Metropolitan Museum of art[2018. 8. 29 검색],  
<https://www.metmuseum.org/>
- 26) Metropolitan Museum of art[2018. 10. 10 검색],  
<https://www.metmuseum.org/>
- 27) victoria and albert museum[2018. 10. 10 검색]  
<http://www.vam.ac.uk/content/articles/f/furniture,-textiles-and-fashion/>

- 28) victoria and albert museum[2018. 10. 10 검색],  
<https://www.vam.ac.uk/>
- 29) victoria and albert museum[2018. 10. 10 검색],  
<https://www.vam.ac.uk/>
- 30) 고베 패션미술관 전경[2018. 8. 8],  
<http://www.fashionmuseum.or.jp/english>
- 31) 박물관 학예연구원 하마다쿠니오(浜田久仁雄) 인터뷰 (부록 2)
- 32) kobe fashion museum library[2018. 9. 29 검색],  
<http://www.fashionmuseum.or.jp/library>
- 33) kobe fashion museum goods[2018. 9. 29 검색],  
<http://www.fashionmuseum.or.jp/goods>
- 34) ① kobe fashion museum [2018. 9. 29 검색],  
<http://www.fashionmuseum.or.jp/>  
 ② 박물관 학예연구원 하마다쿠니오(浜田久仁雄) 인터뷰 (부록 2)
- 35) ① kobe fashion museum [2018. 9. 29 검색],  
<http://www.fashionmuseum.or.jp/>
- 36) Barbara Jacoby(2008), 대학교육과 봉사학습 : 이론적 관점과 실제, 조용하, 학지사, 27-46.
- 37) 조용하(편), 대학봉사학습의 동향과 과제,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38) 액션러닝, Action Learning (HRD 용어사전, 2010. 9. 6., (주)중앙경제) 조직 구성원이 팀을 구성하여 동료와 촉진자(facilitator)의 도움을 받아 실제 업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훈련방법이다.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라는 학습원리를 근간으로 4~6명을 한 팀으로 구성,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Real Problems)를 팀 학습(Team Learning)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 39) N.Ashley Randall Jr, Thomas W. Draper(1981), Coloring-book-type experiences and children's divergent pictorial produc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97-307.

- 40) 가회민화박물관 출판부(2006), 어린이민화교재
- 41) 정민자(2015), 한국민화컬러링북, 힐링아트
- 42) 우나영(2017), 물들이다 : 한복 동화 컬러링북, 클
- 43) 김혜순,정민경(2015), 패션 컬러링북 한복, RHK
- 44) 최유현(2015), 중1기술·가정①, 천재교육, 78-91.
- 45)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살리기 캠페인[2018.10.31.],  
<https://www.sc.or.kr/newborn/>
- 46) 사랑밭 배냇저고리 참여기부 캠페인[2018.10.31.],  
<http://www.withgo.or.kr/campaign>

## 부록 목차

### 1. 국내·외 복식박물관 답사사진자료

|                               |    |
|-------------------------------|----|
| <그림 1> 관내 포토스팟 .....          | 93 |
| <그림 2> 관내 포토스팟 .....          | 93 |
| <그림 3> 관내 포토스팟 .....          | 93 |
| <그림 4> 제3전시실 내부 .....         | 93 |
| <그림 5> 제3전시실 내부 .....         | 94 |
| <그림 6> 제3전시실 내부 .....         | 94 |
| <그림 7> 체험교실 내부 .....          | 95 |
| <그림 8> 발간도서 .....             | 95 |
| <그림 9> 제4전시실 내부 .....         | 95 |
| <그림 10> 제4전시실 내부 .....        | 96 |
| <그림 11> 고구려 관꾸미개 .....        | 96 |
| <그림 12> 고구려 말탄사람 벽화(복제) ..... | 96 |
| <그림 13> 백제 관꾸미개 .....         | 97 |
| <그림 14> 가야 금동관 .....          | 97 |
| <그림 15> 신라 관꾸미개 .....         | 97 |
| <그림 16> 조선시대 두정갑 .....        | 97 |
| <그림 17> 전시실 내부 .....          | 97 |
| <그림 18> 전시실 내부 .....          | 97 |
| <그림 19> 어린이 전시체험실 .....       | 98 |
| <그림 20> 어린이 전시체험실 .....       | 98 |
| <그림 21> 국왕의면복(복원) .....       | 98 |
| <그림 22> 영친왕 곤룡포(복제) .....     | 98 |
| <그림 23> 기린 흥배 .....           | 99 |
| <그림 24> 20세기초 .....           | 99 |

|                                   |     |
|-----------------------------------|-----|
| <그림 25> 영친왕비 쌍동자삼작노리개 .....       | 99  |
| <그림 26> 20세기 왕자 복건 .....          | 99  |
| <그림 27> 전시실 내부 .....              | 99  |
| <그림 28> 전시실 내부 .....              | 99  |
| <그림 29> 관내 프로그램 .....             | 100 |
| <그림 30> 20세기 패션전시 .....           | 100 |
| <그림 31> 온양민속박물관 전경 .....          | 100 |
| <그림 32> 거북홍배 .....                | 100 |
| <그림 33> 전시관 내부 .....              | 101 |
| <그림 34> 전시관 내부 .....              | 101 |
| <그림 35> 대영박물관 전경 .....            | 101 |
| <그림 36> 알래스카 해수류 .....            | 101 |
| <그림 37> 이집트 크리스트 이미지 복식 .....     | 101 |
| <그림 38> 이집트 크리스트 이미지자수 .....      | 101 |
| <그림 39> 대구 섬유박물관 옷입히기 상품 .....    | 102 |
| <그림 40> 대구 섬유박물관 어린이전시활동지 .....   | 102 |
| <그림 41> 국립민속박물관 연령별활동지 .....      | 103 |
| <그림 42>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활동지 .....      | 103 |
| <그림 43>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어린이활동지 ..... | 103 |

## 2. 고베패션미술관 학예원 하마다쿠니오 인터뷰내용

..... 108

## 3.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활동지

..... 111



# 1. 국내·외 복식박물관 답사사진자료

## (1)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그림 1> 관내 포토스팟  
-연구자촬영(2018)



<그림 2> 관내 포토스팟  
-연구자촬영(2018)



<그림 3> 관내 포토스팟  
-연구자촬영(2018)



<그림 4> 제3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5> 제3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6> 제3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7> 체험교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8> 발간도서  
-연구자촬영(2018)



<그림 9> 제4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10> 제4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 (2)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1> 고구려 관구미개  
-연구자촬영(2018)



<그림 12> 고구려 말탄사람 벽화(복제)  
-연구자 촬영(2018)





<그림 13> 백제 관꾸미개  
-연구자촬영(2018)



<그림 14> 가야 금동관  
-연구자촬영(2018)



<그림 15> 신라 관꾸미개  
-연구자촬영(2018)



<그림 16> 조선시대 두정감  
-연구자촬영(2018)

### (3)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17> 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18> 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19> 어린이 전시체험실  
-연구자촬영(2018)



<그림 20> 어린이 전시체험실  
-연구자촬영(2018)

#### (4)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21> 국왕의면복(복원)  
-연구자촬영(2018)



<그림 22> 영친왕 곤룡포(복제)  
-연구자촬영(2018)





<그림 23> 기린 흥배  
-연구자촬영(2018)



<그림 24> 20세기초  
자수 주머니(좌, 중앙), 수저집(우)  
-연구자촬영(2018)



<그림 25> 영친왕비  
쌍동자삼작노리개  
-연구자촬영(2018)



<그림 26> 20세기 왕자 복건  
-연구자촬영(2018)

### (5) 대구섬유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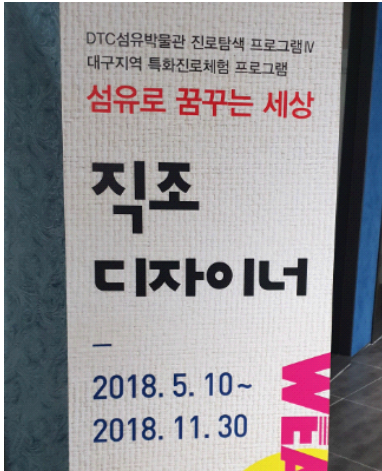


<그림 27> 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28> 전시실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29> 관내 프로그램  
-연구자촬영(2018)



<그림 30> 20세기 패션전시  
-연구자촬영(2018)

## (6) 온양민속박물관



<그림 31> 온양민속박물관 전경  
-연구자촬영(2018)



<그림 32> 거북홍배  
-연구자촬영(2018)



<그림 33> 전시관 내부  
-연구자촬영(2018)



<그림 34> 전시관 내부  
-연구자촬영(2018)

### (7) 대영박물관(영국)



<그림 35> 대영박물관 전경  
-연구자촬영(2016)



<그림 36> 알래스카 해수류  
가죽 파카  
-연구자촬영(2016)



<그림 37> 이집트 크리스트 이미지 복식  
-연구자촬영(2016)



<그림 38> 이집트 크리스트 이미지자수  
-연구자촬영(2016)





<그림 39> 대구 섬유박물관 옷입히기 상품  
-연구자촬영(2018)



<그림 40> 대구 섬유박물관 어린이전시활동지  
-연구자촬영(2018)



<그림 41> 국립민속박물관 연령별활동지  
-연구자촬영(2018)



<그림 42>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활동지  
-연구자촬영(2018)



<그림 43>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어린이활동지  
-연구자촬영(2018)

## 2. 고베패션미술관 학예원 하마다쿠니오 인터뷰내용

고베패션미술관 학예원 하마다 쿠니오 인터뷰 전문 (2018.08.08.)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패션의류학과에서 공부중인 학생으로, 국내외 복식관련 박물관을 조사하는 석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패션박물관으로 귀하의 박물관을 조사 하고자 하는데,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웹사이트 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기획, 전문화 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설전시관 내 전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보유 소장품의 개수와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3. 2014년-2017년 년도별 관람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4.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물관 운영상 답변이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알려주시거나 '답변불가'라고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희올림.

お忙しいところに返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は済州大学大学院のファッション衣類学科で勉強中の学生で、国内外の服飾関連博物館を調査する修士論文を書いています。日本の代表的ファッション博物館に貴下の博物館を調査しようとするが、回答可能な部分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ればありがたいです。

もちろん、ウェブサイト上で見られる多様な展示と公演企画専門化された教育プログラムなどを通じて多くの内容を知ることができたが、その他にも具体的な事項に対する質問いくつか致します。

1. 常設展示館内の展示はどんなものがありますか。
2. 保有の所蔵品の数量と博物館の代表の所蔵品は何がありますか?
3. 2014年-2017年年度別の来場者数はどうなりますか?
4. 特別に進行している教育プログラムがあったら何ですか?

博物館の運営上、回答が難しかった点があれば簡単に教えてくれたり'答弁不可'と作成してください。貴重な時間作っ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베패션미술관 학예원 하마다 쿠니오 인터뷰 전문 (2018.08.08.) - 원본

金昭希より。

金 昭希様

神戸ファッション美術館の学芸員の浜田久仁雄と申します。メー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早速ですが、質問への簡単な回答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1. ① 西洋歴史衣装 1730-1900年代
- ② 現代衣服 1900-2000年代
- ③ 民族衣装 70か国
- ④ ファッション写真
- ⑤ ファッションプレート (歴史的服飾版画)
- ⑥ 映画

2. ドレス等衣装 計9000点

ファッション写真 1500点

ファッションプレート 1500点

ファッションに関わる書籍 3万点以上

古い生地サンプル 4万点以上

以下の動画を見ていただければ、当館の収蔵品の方向性は分かります。

<http://www.curatorstv.com/video/5828877016367104>

この動画に出ています、マネキンは全て当美術館のオリジナルマネキンです。

衣装に毎に製作しています。

3. 毎年 約3万人程度です。

4. 大阪樟蔭女子大学と協同事業としまして、当館所蔵の西洋歴史衣装や現代衣服の復元をしています。触ることが出来ない貴重な衣装を、可能な限り復元し、触ることはもちろん、着ることも目指しています。衣服は、着装しないと本当の意味は理解でき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動画を見ていただければ、いろいろ理解して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今後とも宜しくお願いします。

神戸ファッション美術館

学芸員 浜田久仁雄

고베패션미술관 학예원 하마다 쿠니오 인터뷰 전문 (2018.08.08.) - 번역본

김 소희님

고베패션미술관의 학예원 하마다 쿠니오라고 합니다. 메일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에 간단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1. ① 서양 역사 의상1730-1900연대
- ② 현대 의복1900-2000연대
- ③ 민족의상 70개 국
- ④ 패션 사진
- ⑤ 패션 플레이트(역사적 복식 판화)
- ⑥ 영화

2. 드레스 등 의상 모두9000점

패션 사진1500점

패션 플레이트1500점

패션 관련 서적3만점 이상

낡은 옷감 샘플4만점 이상

이하의 동영상을 보시면, 당관의 수장품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curatorstv.com/video/5828877016367104>

이 동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모두 본 미술관의 오리지널 마케팅입니다.

의상에 따라 제작하고 있습니다.

3. 매년3만 명입니다.

4. 오사카 장음 여자 대학과 협동 사업과 해서, 박물관 소장의 서양 역사 의상이나 현대 의복의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질 수 없는 귀중한 의상을 가능한 복원하고 만지는 것은 물론 입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옷은 장착하지 않으면 진짜 의미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베 패션 미술관

학예원 하마다 쿠니오



### 3. ‘박물관을 탈출한 한복’ 활동지

| 생각해봅시다.  | 그려봅시다.                   |
|--|--------------------------|
| <p>○ 공주당의의 색깔은?</p> <p>○ 공주당의가 살던 시대는?</p> <p>○ 공주당의의 주인은?</p> <p>○ 공주당의의 특징은?</p> | <p>“공주당의는 어떤 모습일까요?”</p> |
| <p>+ 공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p>  |                          |
| <p>+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p>  |                          |
|  | <p>“ ”</p>               |
|  | <p>“ ”</p>               |

## ABSTRACT

### Design of Service-Learning Program us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Researched by Kim So Hee  
Dept. of Fashion and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Hyun Joo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re currently at a time of change. The boundary of traditional costumes has expanded with the appearance of modernized hanbok and there are various types of hanbok. However, due to unclear definition and knowledge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its meaning has been fading. There are a few educational, experience and event program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t a few institutes, but most are one-time events focusing on urban areas, and have relatively low accessibility from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students majoring in relevant studies should improve the perception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mong the general public, diversify public education, and improve accessibility through continuous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ccessibili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by providing fundamental education to improve proper perception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nd through popular programs. For this,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museums that have many traditional costume relics and offer educational, experience, and event programs were studied and analyzed, and education&experience, PR

and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integrating Service-Learning were designed utiliz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s. It is assumed that by integrating Service-Learn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programs and other issues such as realistic difficulties can be somewhat resolved. This study aims at making it 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easily access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nd experience various types of programs through Service-Learning, a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 the existence and value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both literary research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Literary research focused on literature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museum program case-studies, and materials related to Service-Learning programs. Museums possessing domestic and foreign traditional costume relics were visited for empirical investigation and for some museums,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urators.

A Service-Learning program us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was designed based on the investigations and analyses. The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e three categories of educational&experience programs for fundamentals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PR programs for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nd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containing the social value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nd eight sub-programs were desig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domestic museums hav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ankook University Seokujseon Memorial Museu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ad significant quantities of cultural relics, excavated relics, folk costumes, and royal costume materials. In addition, they offer experience programs related to traditional clothing such as

official hat-folding and royal prenatal education (sewing class). They also have continuous exhibits and develop various public programs based on research.

Second, three foreign museums having traditional costume relic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Victoria and Albert Museum, and the Kobe Fashion Museum have collections in themes of traditional costume relics, designers, and changes in fashion by era. They are also characterized by offering educational&experience programs linked with the exhibits for various targets, gala shows using traditional costume relics, and large-scale event programs such as fashion shows.

Third, when summing up the analyses made on the six museums, it was found that when compared to overseas museums with highly developed museums specializing in traditional costumes, Korea have relatively few museums specializing in traditional costumes, the use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is relatively low in existing educational&experience programs, and that diversification of program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ostumes is needed. Furthermore, educational&experience programs of domestic and foreign museums can be divided into the four types linked with exhibits, experience, seminars and lectures, and linking with curricula, and it was found that they were used singularly or in combination.

Fourth, I designed four educational&experience programs such as 'Hanbok escaped from the Museum', 'All about Hanbok', 'Running & Learning Book', and 'Our Clothes in Textbooks'. The four types of educational&experience programs were applied. 'Hanbok escaped from the Museum', which is a type that is linked to exhibits, is a program that combines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with storytelling and in this, young children solve the mystery of the missing princess's Dang-ui together with volunteers. This aims at offering basic knowledge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o young children and make them curious. 'All about Hanbok', which applies both seminar and lectures with experience types, was designed to teach about Korean traditional clothing using relics to foreigners, while also helping them gain understanding on Orientalism such as the five colors, etc., while also offering production demonstrations and wearing experiences. The experience type 'Running & Learning Book' is a 'coloring book for learning through activities'. Through this program of color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it aims at gaining knowledge on the colors and symbol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while gaining deeper understanding on the meaning and use of each artifact. 'Our Clothes in Textbooks' is the type that is linked to curricula and it is a program based on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lass's curricula. It is comprised of learning the basic types and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career mentoring with volunteers to heighten interest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while also helping with setting career goals.

Fifth, the PR program using Korean traditional clothing relics was designed with 'Traveling Korea with Hanbok' and 'Hanbok Reporter Magazine'. In 'Traveling Korea with Hanbok', regional PR teams introduce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and unique local costumes through local events and PR activities. In 'Hanbok Reporter Magazine', volunteers become hanbok reporters to cover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nd the trends and items of hanbok, which are posted on social media and blogs. Such PR programs can approach the masses in a friendly manner and can have the effect of actively using traditional costume relics.

Sixth, the social contribution program was designed as 'From Hand To Hand' and 'Wearing Our Clothes Again'. In the talent donation program 'From Hand To Hand', volunteers provide education on mak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s and traditional handicraft to learners needing help

and donate the proceeds from selling products or help learners become self-sufficient. 'Wearing Our Clothes Again' is designed to upcycle old hanbok into new products for sales and donations. Such programs shed light on the value of old hanbok and also protects the environment, and therefore, its social contribution aspect through recycling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was emphasized.

Through the above Service-Learning program design us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it is judg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educational materi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programs that can be used by museums, universities and relevant institut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lics will be actively utilized. Also, it is judg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ssistance in providing proper perception and information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o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costume, Service-Learning, Fashion Museum, education&experience, PR, social contribution

## 감사의 글

이 글을 끝으로 학부 4년, 석사 3년 의류학과에서의 추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기 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제자를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때로는 호된 가르침을 주신 장현주 지도교수님! 받은 가르침과 마음에 부응하는 제자가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애란 교수님, 하나하나 모자란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주영 교수님. 세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부, 대학원, 조교를 지낸 7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학과의 이해선교수님, 권숙희 교수님, 홍희숙교수님, 이은주교수님, 그리고 도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보듬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힘이 되어준 예비신랑 김석만과 예비시댁 가족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덕에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응원의 힘을 실어준 우리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복식 연구실에 씩씩한 대장 고순희선생님, 해피 바이러스 권수연선생님, 똑순이 막내 향숙이까지 많은 도움과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학과사무실의 동지이자 응원단장 우리수연이, 도움을 많이 준 꿈꿈이 우리희주에게도 감사인사 전해요.

매번 응원해주는 의류학과 친구들,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인 현지, 하영이, 윤주, 2017년의 짝꿍 부지, 그리고 정신적 지주 민희, 종범이, 행옥이, 이나, 혁진이, 2017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조교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반겨주는 코나카 식구들, 미처 다 적지 못한 많은 분들까지 저를 향한 응원과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드림